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2026 Annual Repor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2026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5 인사말

6 통일평화연구원 소개

8 목적·비전
9 연혁
10 조직
12 구성원
17 국외 협력 네트워크
19 국내 협력 네트워크
20 언론 속의 IPUS
25 국외·국내 교류

28 2025-2026 연구 및 사업

30 학술행사
- 국내학술회의
- 국제학술회의

52 통일학센터
- 통일학포럼
- 통일학세미나

78 평화학센터
- 평화학포럼
- 평화학세미나

106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111 교육 및 아웃리치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 제24기 통일아카데미
- 제13기 평화아카데미
- 제3기 최고지도자 과정
- 제5회 시흥시민평화학교
- 제5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

119 출판
- 통일학 시리즈
- AJP
- 통일과 평화
-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
-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인사말 Greetings

김범수 | 통일평화연구원장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연구와 교육, 정책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 발족한 '통일포럼'을 모태로 2006년에 '통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평화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소를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통일의식조사,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 북한사회변동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남북통합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이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작업이 기초 자료의 수집과 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자료는 다수의 학술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및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10년간 인문한국(HK) 사업의 지원으로 평화인문학 연구단을 운영하며 한반도 문제에 기초한 평화학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학교 학내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5년부터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북한, 통일, 평화, 안보,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 통일, 평화와 관련된 교육도 통일평화연구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아카데미, 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통일평화연구원이 시흥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시흥시와 협력하여 시민평화학교와 리더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 평화에 관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논의하는 통일학포럼과 평화학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SCOPUS 등재 영문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를 매년 2회, KCI 등재 국문학술지 『통일과 평화』를 각각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과 동북아 정세, 남북 통일에 관한 연구 경험과 역량 축적을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 문제로 시야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연구와 통일학뿐 아니라 평화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지혜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김 범 수

2025-2026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평화연구원 소개

8 목적·비전
9 연혁
10 조직
12 구성원
17 국외 협력 네트워크
19 국내 협력 네트워크
20 언론 속의 IPUS
25 국외·국내 교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적 Goal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은 '통일'과 '평화'를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 및 평화실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전 Vision

융복합적 통일학 확립

통일대비 다학제적 과제들의 총체적 연구, 남북한 통합과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적 조사와 변동연구를 통해 21세기형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합모델을 구축한다.

<한반도發 평화학> 정립

평화인문학 정립을 통해 평화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통일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도발 평화학을 제안하며, 평화문화의 전 지구적 확산을 도모한다.

차세대 통일·평화 연구역량 강화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학문후속세대양성 방안을 개발하여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소통을 증진한다.

서울대 통일연구 네트워크 구축

'통일의학센터', '통일법센터'. '통일교육연구센터'. '대북영양정책지원실'. '북한·해외농업연구소' 등 서울대 내 통일·북한관련 연구소들간 교류협력의 구심점으로 <서울대 통일연구 네트워크>를 조직·활성화한다.

통일학·평화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SNU국제평화학네트워크》와 《동북아협력네트워크》의 이원적 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연구를 국제화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연혁 History

- 2026. 04.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기념식
- 2024. 09. 통일 안보 클러스터 출범
- 2024. 09. 한미정책브리프(ROK-US Policy Brief) 발간
- 2024. 04. 국문저널 <통일과 평화> 연 4회로 증간
- 2023. 10.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과정 출범
- 2023. 03. 9대 원장 김범수 교수 취임
- 2021. 05. 8대 원장 김병연 교수 취임
- 2021. 03. 평화학총서 발간
- 2020. 11.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발행
- 2020. 09. 평화학포럼 출범, 통일정책포럼을 통일학포럼으로 재출범
- 2020. 07. 시흥캠퍼스로 이전
- 2019. 12. The SNU OLIVE Initiative for Peace Research 출범
- 2019. 06.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출범
- 2018. 03. 7대 원장 임경훈 교수 취임
- 2016. 05. 6대 원장 정근식 교수 취임
- 2016. 03. 통일교육 선도대학 선정
- 2015. 07. 통일기반구축사업 시작
- 2014. 06. 통일연구 네트워크 출범
- 2013. 10. 제1기 평화아카데미 출범
- 2013. 05. 영문저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창간
- 2011. 0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10. 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HK평화인문연구단 사업 선정
- 2009. 06. 국문저널 <통일과평화> 창간
- 2008. 08. 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로 명칭 개정
- 2008. 07.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 사업 시작
- 2007. 05. 통일의식조사 시작
- 2007. 04. 제1기 통일아카데미 출범
- 2006. 04. 12.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설립(초대 소장 박명규 교수)
- 2003. 10. 통일학연구 지원사업 시작
- 2003. 08. 서울대학교 통일학 운영위원회 발족(위원장 전인영 교수)
- 2000. 11. 서울대학교 통일포럼 출범(위원장 장달중 교수)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구성과 조직

운영위원회

구분	학과(부)	성명	구분	학과(부)	성명
원장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위원	환경계획과	김부열
부원장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의학과	박상민
통일학센터장	지리학과	신혜란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평화학센터장	국제농업기술학과	박미선		국제학과	이현태
출판자료실장	정치외교학부	김종학		정치외교학부	차태서
교육실장	윤리교육학과	김상범			
대외협력실장	건설환경공학부	박용성			

인사위원회

성명	소속대학	학과(부)	성명	소속대학	학과(부)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자유전공학부	박정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윤지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월회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구민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지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이효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진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채수홍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구성원 People

원장/부원장/통일학센터장

통일평화연구원

김범수

원장
자유전공학부 교수/학부장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정치이론 (정의론, 인권론, 평화론,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윤지현

부원장
식품영양학과 교수
(퍼듀대학교 호텔경영학 박사)
연구분야: 푸드서비스 & 마케팅

통일학센터장/평화학센터장/출판자료실장/교육실장/대외협력실장

통일평화연구원

신혜란

통일학센터장
지리학과 교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연구분야: 정치지리, 이민자 연구

박미선

평화학센터장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교수
(게오르그 아우구스트-고팅겐 대학교 박사)
연구분야 :국제농업개발협력

김종학

출판자료실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연구분야: 근대 한국 정치외교사와 정치사상사, 개념사

김상범

교육실장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
연구분야 : 국제윤리, 통일교육

박용성

대외협력실장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코넬대학교 토목환경공학 박사)
연구분야: 해안공학

HK교수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부교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문학 박사
연구분야: 러시아/탈사회주의권 문화연구, 평화인문학

백지운

부교수
연세대학교 문학 박사
연구분야: 중국학, 동아시아 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한모니까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역사학 박사
연구분야: 한국현대사, 한국전쟁, 접경지역, 북한지역사

선임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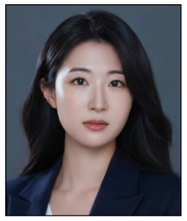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경제학원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중국연구, 북한경제, 동아시아경제협력

이유철

브리스톨 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국제정치이론, 국제규범 및 윤리, 신기술 안보, 경제 안보

이종진

서울대학교 외교학 박사
연구분야: 국가 전략,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우주 안보



윤희수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권위주의 레짐, 북한안보, AI·데이터사이언스

구성원

연구원

김민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담당: 통일의식조사,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국립대네트워크

신인석
동국대학교 북한학 석사
담당: 조사사업, 아카데미

김보라
씨라큐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담당: AJP영문저널

프로젝트 연구원

김대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담당: 통일학/평화학포럼,
지식과비평(IPUS HORIZON)

이역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수료
담당: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행정실

장미숙
행정실장
담당: 행정총괄,
교원인사

이정희
행정원
담당: 일반서무,
법인회계

권선혜
행정원
담당: 연구비
관리, 집행

객원연구원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김성철
통일평화연구원

김완기
통일평화연구원

김진환
통일평화연구원

백태현
통일평화연구원

양윤정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구성원

자문위원

통일평화연구원

김대홍
KBS 부장급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김현태
(주)베니키아재팬 대표이사 사장,
(주)칼튼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사장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박폴라
East Sea Trading, Prime Property Management & investment Services LLC CEO /
前 워싱턴한인회장

박호성
북방통상 대표이사,
아시아한인총연합회 고문

송폴
세계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

심상만
KOTEC 인디아 회장,
세계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

안용호
WAVA Corp CEO

이무수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정광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해외동포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언빈
재향군인회 대만지회장

조홍선
나이지리아 한인회장

국외 협력 네트워크 Foreign cooperation network

국외 주요 협력 MOU 체결

연번	날짜	협력기관	국가
24	2025.06.17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독일
23	2024.07.09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 (나가사키핵무기철폐연구소, 3rd)	일본
22	2023.11.28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Hunan Normal University (호남사범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중국
21	2023.09.27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미국
20	2023.03.17.	Center for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Studies, Ritsumeikan University (리츠메이칸 대학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	일본
19	2019.10.31.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스웨덴
18	2019.10.28.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러시아연방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극동 역사, 고고학, 민속학 연구소)	러시아
17	2019.10.16.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 the Central Region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앙지역사회과학연구소)	베트남
16	2019.10.15.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베트남
15	2019.01.10.	Hiroshima Peace Institute, Hiroshima City University (히로시마 시립대학 평화연구소)	일본
14	2019.01.09.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 (나가사키 핵무기 철폐연구소)	일본
13	2019.01.05.	Graduate Institute for Taiwan Studies of Xiamen University (샤먼대 대만연구원)	중국
12	2018.06.07.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우드로 윌슨센터)	미국

연번	날짜	협력기관	국가
11	2017.12.18.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중국화동사범대학교)	중국
10	2017.01.05.	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 자유대학교)	독일
9	2014.12.24.	Yanbian University Korean Peninsula 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 (연변대 한반도 공동혁신센터)	중국
8	2014.02.01.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 (나가사키 핵무기 철폐연구소)	일본
7	2012.09.26.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saka University (오사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연구소)	일본
6	2012.09.22.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러시아
5	2012.08.15.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러시아
4	2012.08.13.	Moscow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센터, 아시아 아프리카 학부)	러시아
3	2011.09.15.	Library of Congress (미의회 도서관)	미국
2	2007.10.17.	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 (러시아 주립사회대학교)	러시아
1	2007.09.26.	Hanns.Seidel.Stiftung (한스 자이델재단)	독일

국내 협력 네트워크 Domestic cooperation network

국내 주요 협력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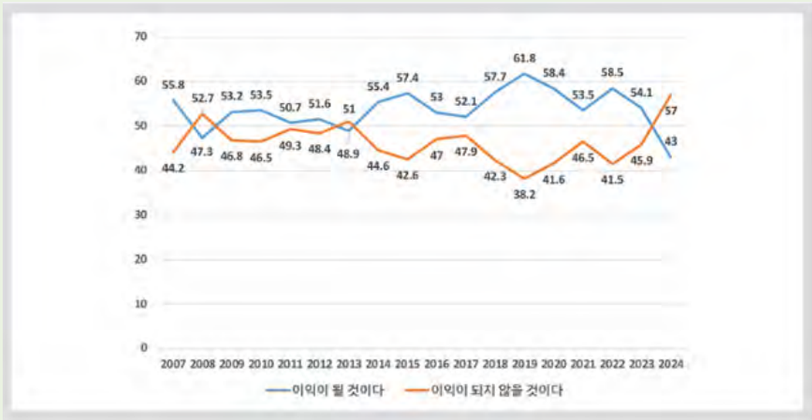
연번	날짜	협력기관
23	2024.04.16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22	2023.11.08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1	2023.10.19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20	2023.06.27	제주대학교 통일교육센터
19	2023.06.26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18	2023.06.02	제주평화연구원
17	2023.05.22	세계한인회총연합회
16	2022.05.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2020.10.30.	통일교육원
14	2020.10.08.	한국법제연구원
13	2019.06.25.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12	2018.06.07.	강원대학교, 인천대학교
11	2018.01.1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0	2017.06.20.	인천대학교 통일후통합연구원
9	2017.03.2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	2016.10.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	2016.0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013.02.0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5	2012.02.22.	한국학술정보
4	2012.11.06.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단
3	2011.07.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	2008.02.0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1	2007.12.03	통일연구원

언론 속의 IPUS IPUS in the Press

광복·분단 80년 새 '통일 필요' 인식 급감... 이젠 77%가 "내 이익 아냐"

(한국일보 2025.08.17.)

(단위: %)



<그림 1-1-3>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응답 추세(200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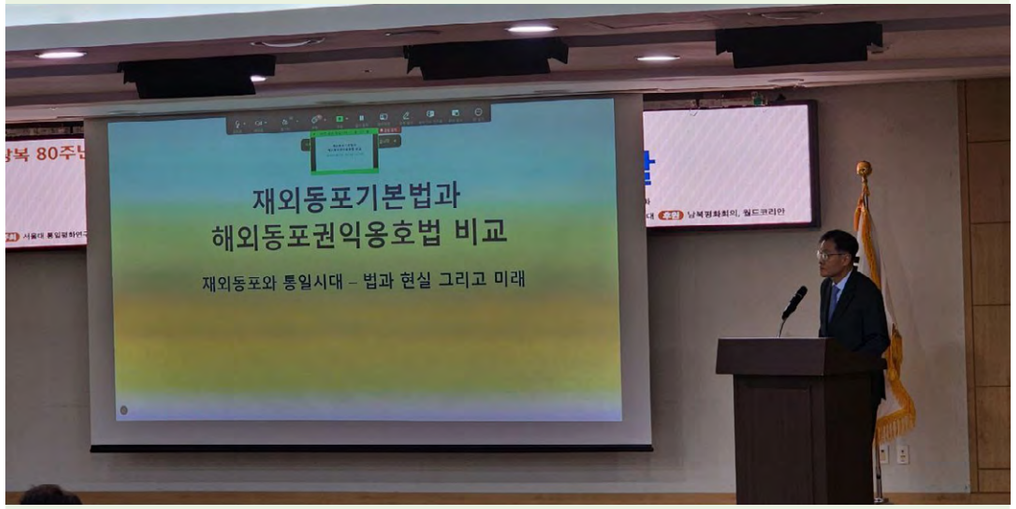
[윤현종 기자]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행사 때 등장했던 구호(국가기록원)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남북 분단도 극복해 '잃어버린 북녘땅'을 되찾겠다는 국가 차원의 신념이 반영된 문구였다. 1960년대 말~70년대 초, 국민 10명 중 9명은 통일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미국·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남북 분단이 초래된 지 딱 80년이 된 올해, 한국인의 뇌리에서 '통일=공동체의 신념'이란 인식은 희미해지고 있다. 최근 몇몇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3, 4명은 통일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10명 중 8명에 육박한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심지어 지난해에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한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는 주장마저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이사장은 최근에도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하자"고 제안해 '통일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서울대와 통일연구원이 각각 조사해 매년 내놓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봤다. 아울러 임 이사장이 던진 '남북 두 국가론'의 현실화 가능성도 짚어봤다.

기사 원문: https://v.daum.net/v/20250817070127179

"재외동포들이 끊어진 남북관계의 오작교가 되어야"

(오마이뉴스 2025.08.25)



[윤종은 기자]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청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구축 필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사회의 평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배·이재강·이기헌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해외촛불행동, (사)평화의 길, 미주동포전국연합(NAKA), 미주희망연대가 주최했다. 또한 남북평화회의와 월드코리안이 후원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동포사회의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 회장이 '재외동포기본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비교 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했다.

기사 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9360

언론 속의 IPUS

한국인 41.1% "통일 필요하다" 전년 대비 상승..."李정권으로의 교체 효과"

(조선일보 2025.09.30.)

[김도연 기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이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효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8월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1%로 전년도(36.9%) 대비 4.2%p 증가했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0.4%로 전년도(35.0%) 대비 4.6%p 하락했다. 연구원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진보 정부로의 정권 교체 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응답자의 52.0%는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8.9%p 증가한 수치다. 연구원은 "출범 3개월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했다. 대북 정책 현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현안별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전년도 대비 21.8%p, '금강산 관광 재개'가 21.1%p, '대북 삐라 살포 금지'가 16.1%p 증가했다. 2025년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보다는 경계적인 의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9/30/AKHK6ZFYAFCZVDTEOLUJ6JC2Q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 공동 세미나 8일 개최

(중앙일보 2025.12.05)

[김나혜 인턴기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5년 12월 8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을 주제로 한국정치학회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주관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과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의 개회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제적 연구와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7735

언론 속의 IPUS

"유엔사, 과거엔 먼저 'DMZ 평화적 이용' 추진...정전협정 해석도 달라져"

(뉴스1 2026.01.23.)

[임여익 기자]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활용법 마련' 구상에 유엔군사령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와 유엔사가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유엔사가 먼저 나서 "DMZ를 남북 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전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DMZ 활용 구상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정부와 유엔사 간 '유연한 합의'만 있다면 이는 충분히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공동개최로 'DMZ 관련 법 체계와 평화적 이용' 세미나가 열렸다.

기사 원문: https://v.daum.net/v/20260123175303300

국외·국내 교류 Foreign and domestic exchange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와 MOU 체결 (2025.06.17.)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부총장 서울대학교 방문 (2025.09.19.)

서울대-워싱턴대 공동주최로 한미관계 미래 비전 토론 (2025.10.22.)

대만정치학회 회장 발표 (2025.12.0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2026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30 학술행사

52 통일학센터

78 평화학센터

106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111 교육 및 아웃리치

117 출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학술행사

- 국내학술회의
-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주제	개최년월
[제100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2025년 4월 10일(목) 09:30~17:00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광복 80년, 한국정치의 도전과 응전	2025년 8월 21일(목)~ 23일(토)
[2025 남북 문화교류 교육 프로그램] '다시 또 같이!' 남북 문화교류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I	2025년 8월 27일(수) 14:00~16:00
[제101차 국내학술회의] 2025 통일의식조사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2025년 10월 1일(수) 14:00~18:0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 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2025년 10월 20일(월) 14:00~18:00
[통평원-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	2025년 12월 8일(월) 13:00~18:00
['남북 문화교류 서로 잇기' 문화행사] 하나의 아리랑, 경계를 넘어	2025년 12월 11일(목) 14:00~16:00
[통일부 후원 학술회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법 체계와 평화적 이용	2026년 1월 23일(금) 14:00~17:40
[제102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2026년 4월 16일(목) 13:40~21:00

◆ [제100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학술회의 –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 일시: 2025년 4월 10일(목) 09:3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20동 204호
- 주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창립 19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0일 목요일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주제로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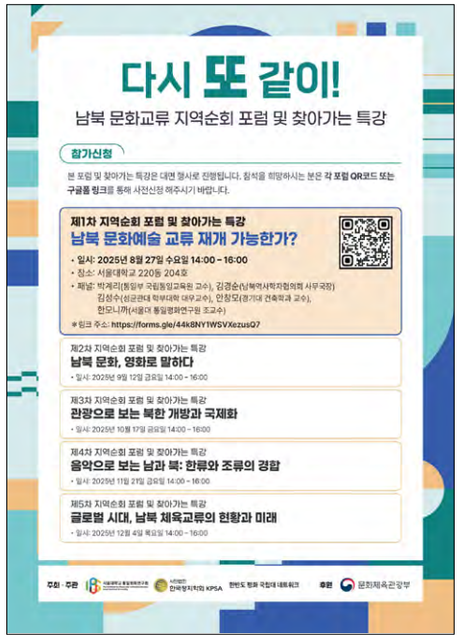
광복 80년, 한국정치의 도전과 응전

-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 23일(토)
- 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 및 파크하얏트 부산
- 주제: 광복 80년, 한국정치의 도전과 응전
- 공동주최: 한국정치학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부경대학교 등

◆ [2025 남북 문화교류 교육 프로그램]

‘다시 또 같이!’ 남북 문화교류 지역순회 포럼 및 찾아가는 특강 I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14:00-16:00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220동 204호
- 주제: 남북 문화예술 교류 재개 가능한가?
- 패널: 박계리(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김경순(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수(성균관대 학부대학 대우교수), 안창모(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한모니까(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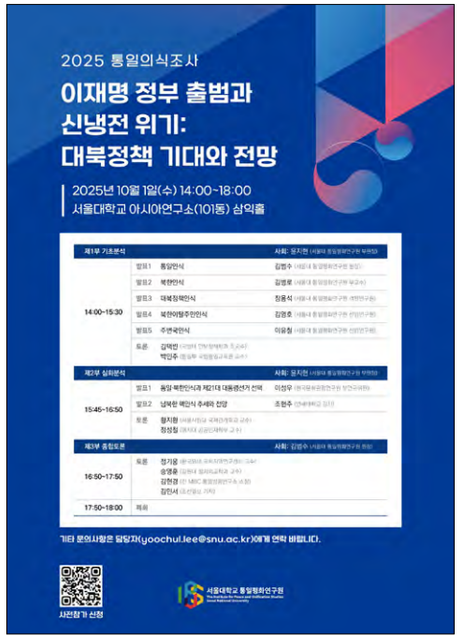


◆ [제101차 국내학술회의]

2025 통일의식조사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 일시: 2025년 10월 1일(수) 14: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삼익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지난 19년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 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 14:00-18:00
- 장소: 롯데호텔서울 가넷스위트(37F)
- 주제: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 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

◆ [통평원-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

-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13: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모색
- 주최: 한국정치학회, 통일부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남북 문화교류 서로 잇기' 문화행사]

하나의 아리랑, 경계를 넘어

- 일시: 2025년 12월 11일 (목) 14:00-16:00
- 장소: 서울대병원 대한외래 B1 인술제중광장
- 주제: 하나의 아리랑, 경계를 넘어
- 구성: • 1부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 버스킹 공연
  • 2부(메인) 가야금연주가 박순아 /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 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공동으로 '남북 문화교류 서로 잇기'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버스킹 공연으로 서막을 열었고, 2부 메인 공연에서는 '아리랑'을 주제로 박순아 가야금 연주가 및 서울대 국악과 학생들의 협연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특별무대를 진행하였습니다.

◆ [통일부 후원 학술회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법 체계와 평화적 이용

- 일시: 2026년 1월 23일 (금) 14:00-17:4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회의실
- 주제: 비무장지대(DMZ) 관련 법 체계와 평화적 이용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재강 의원실
- 후원: 통일부

◆ [제102차 국내학술회의]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 일시: 2026년 4월 16일(목) 13:40~21: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무궁화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범수)은 4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06년 설립 이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연구를 선도해 온 연구원의 20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평화의 향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이후 복합 위기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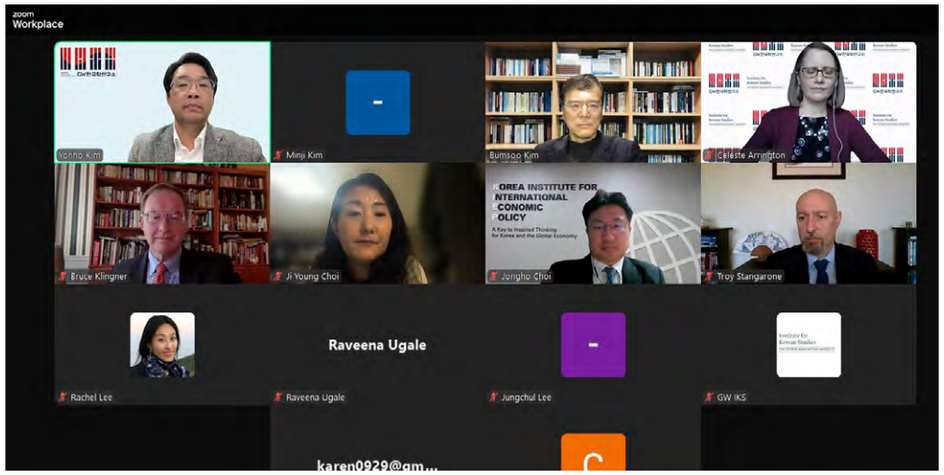
국제학술회의

주제	개최년월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The Trump 2.0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2025년 4월 1일(화) 22:00~23:30 (KST)
[IPUS-RECNA 공동 워크숍&세미나] Nuclear Risks and Emerging (In)security: Insigh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2025년 9월 16일(화)~17일(수) 09:00~18:0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중국 호남사범대학교 공동주최 학술회의] 전환기 한중 교류의 현황과 과제	2025년 9월 19일(금) 9:30~16:40
[IPUS-RECNA 공동 세미나] Security Shifts and Comprehensive Strategy: A Study on perspective from the Emerging Technologies	2025년 10월 21일(화)~22일(수) 09:00~18:00 (KST)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주시애틀총영사관 공동주최 학술회의] 제12회 한반도 포럼	2025년 10월 22일(수) 17:30~19:0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화동사범대 주변국가연구원 주관] 제2회 장안포럼	2026년 1월 29일(목)~30일(금)
[IPUS-RECNA-INSS 공동 세미나] The Risk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Nuclear Use in Security Issues: Insigh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ologies	2026년 2월 24일(수)~25일(목)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Assessing North Korea's '20×10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olitical Recalibra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2026년 4월 15일(수) 22:00~23:30 (KST)

◆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The Trump 2.0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Korean Economy

- Dates: Tuesday, April 1, 2025 at 10:00-11:30 PM (KST)
- Venue: ZOOM Webinar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언어: Engilsh/ 질의응답은 한영 동시통역 제공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Event Schedule

Time	Content
	Welcoming Remarks
9:00 AM - 9:05 AM	**Celeste Arrington**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Bumsoo Ki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 Discussion
9:05 A.M. - 10:05 A.M.	Moderator: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peakers: ○ **Ji-Young Choi**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North Korea's Strengthening of the State Distribution System and Market Fluctuations* ○ **Jangho Choi** (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Korean Unification Te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North Korea's Economy from 2020 to 2024: Insights from Trade Statistics and Satellite Data Analysis* ○ **Bruce Klingner**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The Heritage Foundation) *Prospects For New Sanctions Monitoring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Trump's Likely Approach to North Korea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 **Troy Stangarone** (Director, Hyundai Motor-Korea Foundation Center for Korean History and Public Policy, Wilson Center) *The Impact of the Ukraine War's End on North Korea's Economy and U.S. Engagement*
10:05 A.M. – 10:15 A.M.	**Roundtable Discussion (10 min)**
10:15 A.M. - 10:30 A.M.	**Q&A (15 min)**

◆ [IPUS-RECNA 공동 워크숍&세미나]

Nuclear Risks and Emerging (In)security: Insigh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September 16 (Tue.) DAY 1

- Opening (9:55-10:00)
- Welcome Remarks: Fumihiko Yoshida (RECNA)
- Theme: Nuclear catastrophe revisited: Insights from Nagasaki, Chornobyl and Fukushima through medical and societal l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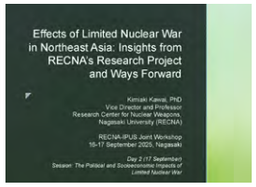
Part 1 10:00-13:05

What happened in Nagasaki, Chornobyl and Fukushima	
Byungdug Jun Overview of A-bombing effects in Nagasaki	35 minutes
Masahiro Nakashima Overview of a-bomb survivor health study: 35 minutes	35 minutes
Break	15 minutes
Noboru Takamura Risk communication after a nuclear disaster	35 minutes
Mark Zheleznyak Environmental monitoring after nuclear disasters	35 minutes
Discussion	30 minutes

(Lunch and Small Excursion: 115 minutes)

Part 2 15:00-17:45

Medical preparedness for a nuclear catastrophe in Eastern Asia	
Minsu Cho Medical preparedness for a nuclear disaster in Korea	35 minutes
Li-Fan Lin Medical preparedness for a nuclear disaster in Taiwan	35 minutes
Break	15 minutes
Shunichi Yamashita Nuclear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in Japan – Lessons learned from Fukushima	35 minutes
Joo Jeong (Discussant)	15 minutes
Discussion	30 minutes



September 17 (Wed.) DAY 2

- Opening (9:55-10:00)
- Welcome Remarks: Fumihiko Yoshida (RECNA)
- Theme: Korean Peninsula and Japan in an emerging security landscape: Strategic policy responses

Part 1 Moderator: Kazuko Hikawa (RECNA) 10:00-13:00

The rise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national security	
Jong Jin Lee Cyber-AI Threats: The Emerging Security Nexus	30 minutes
Jaroslav Krasny Biosecurity in East Asia: National Approaches, Strategic Ambiguity, and the Role of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30 minutes
Heigo Sato: Emerging technology and security (TBC):	30 minutes
Wilfred Wan : Discussant:	15 minutes
Break	15 minutes
Discussion	65 minutes

(Lunch and Small Excursion: 115 minutes)

Part 2 Moderator: Kimiaki Kawai (RECNA) 15:00-16:45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mpacts of limited nuclear war	
Kimiaki Kawai Effects of Limited Nuclear War in Northeast Asia: Insights from RECNA's Research Project and Ways Forward	25 minutes
Sebastian Brixey-Williams Effects of limited nuclear war in South Asia	25 minutes
Discussion	55 minutes
Break	15 minutes

Part 3 Fumihiko Yoshida (Moderator) 17:00-18:10

Future prospects	
Discussion on the Way forward	60 minutes
Concluding remarks: **Bumsoo Kim** (IPUS)	
Concluding remarks: **Fumihiko Yoshida** (RECNA)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중국 호남사범대학교 공동주최 학술회의]

전환기 한중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동백룸
- 주제: 전환기 한중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SNU-HNU 공동 학술회의

전환기 한중 교류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9:30~16:4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동백룸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평화·통일학 협동과정 湖南师范大学

등록 및 개회식	
9:15 ~ 9:30	등록
9:30 ~ 10:00	개회식 사 회 윤지현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개회사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축 사 채미화 (호남사범대 동북아연구소 소장)

세션1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10:00~11:40
사 회	김범수 (서울대)	
발표 1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인식 문제와 그 심층적인 동인 분석	채미화 (호남사범대)
발표 2	중국 청년 학생들의 대한(韓)인지 동태 분석	양안 (호남사범대)
발표 3	한중 청년세대와 혐중(嫌中) 문제	하남석 (서울시립대)
토 론	발표자 상호 토론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세션2 | 한류의 기원 및 현황과 과제		13:00~14:40
사 회	김병로 (서울대)	
발표 1	전후 미국의 대한(韓) 문화전략 연구	소화봉 (호남사범대)
발표 2	한류 30년의 변천과 그 특징	한예민 (호남사범대)
발표 3	한류의 역동성과 미래	홍석경 (서울대)
토 론	발표자 상호 토론 및 참석자 전원 토론	

휴식 (14:40~15:00)

세션3 | 한중 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15:00~16:40
사 회	권형기 (서울대)	
발표 1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염초 (호남사범대)
발표 2	한강 작품의 중국 내 번역 소개, 전파 및 연구	여승법 (호남사범대)
발표 3	최근 북한 문화 정책에 관한 고찰	모리 도모오미 (세쓰난대)
토 론	발표자 상호 토론 및 참석자 전원 토론	

[IPUS-RECNA 공동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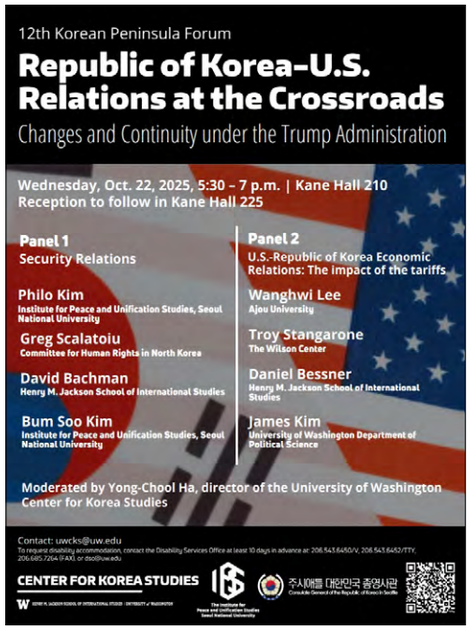
Security Shifts and Comprehensive Strategy: A Study on perspective from the Emerging Technologies

- 일시: Tuesday, October 21-22, 2025, at 09:00-18:00 (KST)
- 장소: Seminar Room at RECNA, Nagasaki University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RECNA), Nagasaki University
- Presenters: Dr. YOON Junghyun(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Rise of AI-Enabled Strategic Non-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YOO Jiyeon(Sangmyung University)
  Generative AI Threats in the Non-Nuclear Cyber AI Nexus: A Technology Policy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Security Risks
- Language: English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주시애틀총영사관 공동주최 학술회의]

제12회 한반도 포럼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17:30-19:00
- 장소: Kane Hall 210, Reception to follow in Kane Hall 225
- 주제: Republic of Korea-U.S. Relations at the Crossroads Changes and Continuit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시애틀총영사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화동사범대 주변국가연구원 주관]

제2회 장안포럼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30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509호
- 주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한중일 협력
- 주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화동사범대학 주변국가연구원
- 공동주최: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원
- 후원: Beijing Chenxing Education Foundation

◆ [IPUS-RECNA-INSS 공동 세미나]

The Risk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Nuclear Use in Security Issues: Insigh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 일시: February 24-25, 2026
- 장소: Conference Room #204 at Building #220,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Seoul Main Conference Room, 12 floor, INSS (120, Eonju-ro, Gangnam-gu), Seoul
- Organized b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PUS)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 (RECNA)
- In collaboration wit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 [IPUS-GWIKS 공동 웨비나]

North Korea Economic Forum- Assessing North Korea's '20×10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Political Recalibra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 Title: Assessing North Korea's '20×10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olitical Recalibra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 Dates: Wednesday, April 15, 2026 at 10:00-11:30 PM (KST)
- Venue: ZOOM Webinar
-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언어: 한·영 동시통역 제공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Event Schedule

Time	Content
	Welcoming Remarks
9:00 AM - 9:05 AM	**Celeste Arrington**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Bumsoo Kim**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 Discussion
9:05 A.M. - 10:05 A.M.	Moderator: **Yonho Kim** (Associate Direct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peakers: I. **Political Logic and Governance Reconfiguration** ○ **Ken Gause** (Analyst and Senior Advisor, Institute of Defense Analyses) ○ **Hojye Kang** (Freie Universität Berlin) II. **Economic Sustainability and Industrial Structure** ○ **Illiana Ragone** (Research Associate, 38 North) ○ **Ji-Young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0:05 A.M. – 10:15 A.M.	**Roundtable Discussion (10 min)**
10:15 A.M. - 10:30 A.M.	**Q&A (15 min)**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통일학센터

- 통일학포럼
- 통일학세미나

남북한 통합과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통일과정 또는 통일 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토하며,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심리적 차원을 아우르는 통일학 정립을 목표로 한다.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조사〉, 〈북한주민의식조사〉, 〈북한사회변동조사〉 등 북한·통일 관련 관련 기초조사, 통일학 기획연구 수행 및 외부연구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통일학포럼〉으로 통일·북한 현안에 관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통일학총서〉, 〈통일학신서〉, 〈통일학연구〉 등의 《통일학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통일학포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북한·통일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통일학포럼(IPUS Unification Studies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는 통일학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에 출범한 <통일정책포럼>을 계승한 것으로, 정책 뿐만 아니라 통일학, 평화학 관련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기 위해 2021년 현재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통일학포럼은 북한·통일문제, 국제정세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융복합적, 다학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한 학문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5년도에는 총 11차례의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06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

- 일시: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15:00 – 17: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senior lecturer)을 모시고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라는 주제로 제106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6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강호제 부교수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혁신체제를 김정은의 20×10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정은은 "20×10 정책"을 발표하며, 10년 동안 매년 20개의 시·군에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하는 지역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북한 최초의 이름 있는 지역 개발 정책으로, 단순히 몇몇 공장을 현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 경제의 포괄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정책을 처음 언급하며, 공장 현대화뿐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역 경제 전환을 강조했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도(13개), 시·군(약 200개), 리(약 4,000개)로 나뉘는데, 20×10 정책은 평양이나 주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 자원과 군 병력을 동원하며, "지역 산업 건설 지도"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 정책의 기반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지역 경제 개발 전략에 있다. 김화군(강원도)이 그 첫 시험 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극도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화군은 2020년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산업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산악 지대다. 북한은 홍수 피해 복구 대신 주택 100여 채와 공장을 완전히 재건하며 지역 경제를 개편했다. 새롭게 건설된 공장들은 식품, 의류, 일용품, 제지 공장 등을 포함했으며, 이 중 제지 공장은 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김화군 사례는 지역 수준에서 원료와 인력을 자급자족하고, 중앙 정부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은 북한이 2023년 김화군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김정은은 20×1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직접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명시한 이례적인 사례다. 또한, 군 병력과 당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며, 이를 통해 자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기계 등 물건을 만들고,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군수공장과 군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즉 군사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과학기술의 스핀 오프(spin off)가 일어나고 있다.

20×10 정책은 지방 중심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자급자족형 경제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북한은 이 정책을 통해 전국적인 경제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향후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과 지역 혁신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호제 부교수는 북한이 과학기술 혁신과 이것을 지역개발과 접목하여 혁신친화적인 나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발 표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Senior Lecturer)
사 회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 [제107차 통일학포럼]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선택지와 강대국 외교

- 일시: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선택지와 강대국 외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대만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선택지와 강대국 외교'라는 주제로 제107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7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김인욱 교수는 대만 유사시를 가정했을 때 한국이 직면하게 될 군사적 선택지와 외교적 전략 공간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그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할 때 흔히 나타나는 네 가지 한계점을 우선 지적했다. 첫째, 한국의 논의는 대부분 미국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제한되는 '수동적(reactive)' 사고에 머물러 있고, 둘째, 한번 선택한 정책이 고정된다는 '정적(static)' 전제를 깔고 있으며, 셋째, 가능한 옵션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상정하는 '부분적(partial)' 접근이 많고, 넷째, 중국 변수는 배제되고 미국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미국 중심적(US-centric)'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네 가지 범주, 즉 '현상 유지, 후방 지원, 전방 기지화, 직접 참전'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의미와 외교적 파급효과를 차례로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 대외정책의 변화 흐름도 함께 짚었다. 그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으나, 2021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이 언급되며 기조 변화가 시작되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등에서 대만 문제가 '국제적' 차원의 사안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대만 문제가 한국의 직접적 핵심 이익은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의 군사 기여 요구와 중국의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한국이 실질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전통적인 동맹이론의 핵심인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비추어 해석하였으며, 한국이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조건부 참여'와 '사전 조율' 등 외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후 김 교수는 첫 번째 옵션인 '현상 유지(Status Quo)' 방식을 설명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 한정하고 한국 영토 사용과 주한미군 전력의 타 전장 차출을 불허하는 접근이라고 보았다. 하위 유형으로는 방관자(완전한 불개입), 인도적 지원 등 중립적 대응, 비살상 물자 지원 및 제재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미국의 불만과 압박, 주한미군 운용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회색지대전 대응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옵션은 '후방 지원(Rear Support)'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한 물자 지원, 정비 및 의료, 유입·경유 기지 역할 수행 등 제한된 방식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 개입의 수위를 낮추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며, 외교적으로 확전 관리를 조건으로 한미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 '전방 기지화(Forward Basing)'는 오산·군산 등 주한미군 기지를 직접적인 대중 군사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김 교수는 이 옵션이 한반도를 중국의 선제타격 범위로 끌어들이고 북한과의 연계 도발 가능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지라고 평가하였다. 이 경우 미국에는 강력한 확전 억제력 제공을 요구하고, 중국에는 한국 영토 공격이 곧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이자 가장 고강도 선택지인 '직접 참전(Direct Participation)'의 경우, 미 해군 및 공군 자산 호위, 서해상 작전, 대만 전구로의 파병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옵션은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높은 신뢰와 기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과의 정면 충돌 및 핵 확전 가능성, 북한의 연계 행동 등 막대한 위험이 수반된다고 분석하면서도 직접 참전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 교수는 본 연구가 전면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음을 전제하며, "대만 전쟁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파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접근이 "핵전쟁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각국이 대응 계획을 갖추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한국의 다양한 군사적 개입 수준과 이 과정에서 미국 및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 이슈들은 한국뿐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도 참고할 수 있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제시한 네 가지 역할과 각 군사 옵션별 외교적 대응책은 "최종 목록이 아니라 1차적인 정리이며, 실제 정책 상황에 따라 조정되거나 옮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지속적인 토론의 대상"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프로그램	
발 표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 회	천해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전 통일부 차관)

◆ [제108차 통일학포럼]

북일관계(朝日関係)와 북한의 관광정책

- 일시: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15:00 – 16: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일관계(朝日関係)와 북한의 관광정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소자끼 아츠히또 게이오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북일관계(朝日関係)와 북한의 관광정책'라는 주제로 제108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8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및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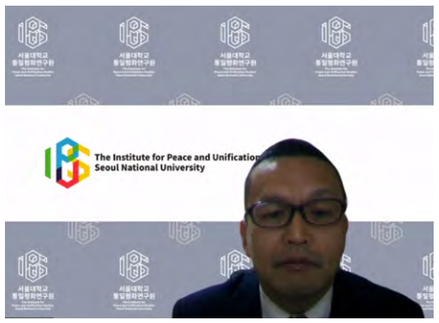
이소자끼 교수는 먼저 북일 수교의 부재와 그 배경을 짚으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주요 시도들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는 1950년대 중반 스탈린 사후 국제적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의 북일 접근 시도, 1970년대 미중 데탕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가 성립된 이후의 북일 협상 기대, 1990년대 초 3당 공동선언 및 국교 교섭 개시, 그리고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과 '일조평양선언'을 중심으로 북일 관계의 주요 전환점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의 귀국을 허용한 사건은 북일 간 외교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소자끼 교수는 납치 문제가 이후 일본 내 여론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이후 일본의 대북 정책이 점차 강경화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2014년 스톡홀름 합의와 202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조전,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2024년 연속 담화를 언급하며, 최근까지도 북일 간 잠재적인 접촉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상호 불신의 심화와 일본 내 보수 여론의 견고함, 북측의 전략적 환경 변화로 인해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소자끼 교수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관광 산업이 전략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이후 양덕 온천, 원산 갈마해안, 삼지연 지구 등 주요 관광개발 사업이 연이어 추진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양덕 온천 관광지구를 1년 반 동안 7차례 이상 현지지도한 사실은 관광을 통한 대외 메시지 발신과 체제 선전을 동시에 꾀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는 관광 산업이 북한에게 단순한 외화벌이 수단이 아니라 "선전이 본질이고 외화벌이는 부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광정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및 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층적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소자끼 교수는 북한의 관광산업은 향후에도 국내외 선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속적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이소자끼 아츠히또 (게이오대학교 교수)
사 회	이정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정치외교학부 교수)



◆ [제109차 통일학포럼]

러우전쟁 종전협상과 한국전쟁 휴전협상 사이에서

- 일시: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14:00- 15:4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러우전쟁 종전협상과 한국전쟁 휴전협상 사이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와 김규범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모시고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러우전쟁 종전협상과 한국전쟁 휴전협상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제109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09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열었다.

먼저 제성훈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가능성과 장애 요인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2022년 3월 이스탄불 협상안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안전보장국 모델을 담은 초기 성과로 주목되었으나, 같은 해 4월 발생한 부차 학살과 러시아군의 키이우 철수로 협상 국면이 급변했다고 보았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여지를 확보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서방의 군사·재정 지원 확대는 외교보다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전쟁 지속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으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의 협상 구조가 과거 냉전 시기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평가했다.

제 교수는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된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조항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전쟁 발발 시 자동 개입하는 구조를 원했지만, 이는 군사동맹 수준의 약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중립국 모델과 양립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양측 모두 협상보다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 하에서는 단기적 협상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김규범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을 역사적 사례로 제시하며, 현재의 러우전쟁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1951년 6월 시작된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1953년 7월까지 약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선의 고착화와 중공군 개입이 협상을 본격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음을 언급했다. 협상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포로 송환 문제, 정전 감시기구 구성 등 복잡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치열한 전투와 협상이 병행되던 '소모전-협상 병행구조' 속에서 정전이 성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김 박사는 협상 성립의 배경으로 여러 국내외 정치 요인을 함께 제시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트루먼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과 아이젠하워 당선 이후의 전쟁 종식 의지가 맞물렸고, 소련 측에서는 스탈린 사망(1953.3) 이후 흐루시초프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 역시 전후 국제질서 재편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이런 복합적 조건들이 정전 타결의 환경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이어 김 박사는 러우전쟁의 종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금은 전환점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1951년 당시의 정전 전환 국면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거나 정치적 양보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과 미국이라는 외부 강대국들도 뚜렷한 협상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협상 대신 현상 고착을 노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의 지원 하에 전장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고 있어, 과거 한국전쟁의 경우처럼 국제적·국내적 절충이 형성될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정전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전 당사자의 의지만이 아니라, 전후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넓은 외교적 조율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김규범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 회	이유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110차 통일학포럼]

복잡한 국제정세 속 북한 핵문제의 재조명

- 일시: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14:00-16: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복잡한 국제정세 속 북한 핵문제의 재조명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구양모 미국 노르위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모시고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복잡한 국제정세 속 북한 핵문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110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0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 조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열었다.

구양모 교수는 현재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위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한편, 이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과거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였다면 신냉전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경쟁하는 다극 체제이며, 이념적으로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 아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구도로 변화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완전한 분리상태와 달리,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깊은 상호의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군사·기술 분야 역시 직접적 '대결(confrontation)'에서 치열한 '경쟁(competition)'으로 양상이 바뀌었고, 문화적으로도 단절이 아닌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잡성을 띤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주변에서 네 가지 핵심적인 현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이고, 둘째와 셋째는 이에 따른 동북아 내 선명한 블록 대결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의 연대 또한 공고해진 것이다. 넷째는 가상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 시 예상되는 동맹 정책의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대이다. 이 네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딜레마'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모든 논의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

구 교수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북한 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냉전의 진화' 과정에 따라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신냉전의 초기 및 개발 단계(Initiation Phase 2008-2009)에서 북한은 국제 제재와 위협 속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2017년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강력한 제재와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을 강행한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신냉전 구도가 공고해진 강화 및 고착화 단계(Consolidation Phase 2020-현재)에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북·중·러 블록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적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과거 북핵 문제의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이었던 국제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북한의 내부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구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며, "핵무기만이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강력한 복음'"이라는 인식을 굳혔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자발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2019년 스톡홀롬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며 국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북한이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두 가지가 꼽혔다. 첫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이다.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급락하여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이다. 가령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중국 압박 집중, 동맹 정책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여 현재의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구 교수는 '신중한 관여(prudent engagement)'라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일관된 기조 위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중장기적 전략이다. 비록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일지라도,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이를 고수하기보다 '스몰 딜(small deal)'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도 180도로 뒤바뀌는 '남남 갈등'을 극복해야만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강연은 북한 핵 문제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인내심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 즉 '신중한 관여'가 절실함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국가 전략으로, 구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 질서의 틀 안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략적 외교를 통해,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 새로운 시대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발 표	구양모 (미국 노르위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사 회	이경석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제111차 통일학포럼]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 일시: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14:00-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0월 20일(월)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을 모시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이라는 주제로 제111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1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최진욱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 외교는 트럼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며, 냉전기 이후 미국 외교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조망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나 예측 불가능성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이 현상을 '현실주의', '지정학', '공화주의', '마가(MAGA) 운동'이라는 네 가지 뚜렷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고착화된 하나의 전략적 흐름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한국 외교의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최진욱 원장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미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있다. 과거 냉전 시대의 패권국 지위와 달리, 현재 미국은 37조 달러의 막대한 정부 부채와 국방비에 버금가는 연간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추격해오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국내적으로도 과거의 통합된 모습과 달리 빈부 격차, 마약, 불법 이민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미국의 쇠퇴' 논쟁이 트럼프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 인식은 트럼프 이전의 외교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는 냉전 승리 후 추진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의 한계이다. 둘째와 셋째는 이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 정책의 실패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나토(NATO) 동진으로 러시아를 자극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3세계 민주화 시도가 9.11 테러라는 역풍을 맞이한 것이다. 넷째는 가장 결정적인 실패인 대중국 정책이다.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로 편입시켜 민주화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네 가지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 정책이 등장하는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
최 원장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트럼프 정책의 첫 번째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전략의 첫 번째 기반인 '현실주의' 단계에서, 미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를 직시했다. 과거 자유주의의 낙관론과 달리, 미국이 불필요한 해외 공약(over-commitment)에 과도하게 개입해 힘을 분산시켰다고 비판했다. 2010년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핵심 경쟁자인 중국 견제에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공고해진 '지정학'적 인식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표되는 이 관점은 냉전의 승리가 '사상의 승리'가 아닌 '지리의 승리'였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거 미국의 성공이 이념의 우월성이 아닌, 대양으로 둘러싸인 '축복받은 지리' 덕분이었다는 인식을 굳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인식은 미국의 내부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최 원장은 미국이 '사상의 승리'라는 오만에 빠져 불필요한 해외 개입으로 쇠퇴를 자초했다고 보며,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자원을 이용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굳혔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은 이러한 현실주의, 지정학적 인식을 국내 정치 이념으로 뒷받침했다. '공화주의' 이념은 단순 다수결(의회)보다 법치(행정명령)를 우위에 두는 근거가 되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을 정당화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사회 운동인 '마가(MAGA) 운동'은 반이민 정책, 보호무역, 전통적 가치, 대외 개입 최소화를 요구하며 트럼프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특히 3천만 명의 불법 이민자 문제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되어, 국경 장벽 건설을 핵심 정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두 가지가 꼽혔다. 첫째는 '동맹 관계의 붕괴'이다. 트럼프 정책은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동맹을 경시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인 리더십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둘째는 '핵심 목표의 실패'이다. 대중국 견제 전략은 오히려 브릭스(BRICS)를 결집시키고 인도를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는 등, 의도와 달리 중국에 전략적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는 한국 외교에 장기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한다. 최진욱 원장은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라는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며, 심지어 '주한미군 기지 소유' 발언을 통해 한국을 항구적인 대중국 견제 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할지라도, 이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보다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국익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강연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더 이상 과거의 자유주의 패권 방식이 아닌, 미국이 처한 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등장한 복합적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거나 단절적인 접근이 아닌 새로운 외교적 접근, 즉 '레버리지 활용'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국가 전략으로, 최진욱 원장은 한국이 미국 역시 한국의 기지나 조선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러한 레버리지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미 동맹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균형 잡힌 전략적 외교가 이 새로운 시대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발 표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
사 회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제112차 통일학포럼]

북한 제8회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 일시: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4:00-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1월 24일(월)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모시고 "북한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12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2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임강택 사단법인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먼저 2021년 제8차 당대회의 의미를 짚으며, 북한이 이전 시기와 달리 성과 중심의 양적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계획 체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제재 장기화, 코로나19 봉쇄, 경제 기반 침식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5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의 핵심을 '정비·보강' 전략으로 규정했다. 금속·화학 등 기초공업의 정상화, 농업·경공업 기반 확충, 에너지·기계·철도·물류 등 생산 인프라의 복원은 모두 생산능력 자체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경제 운영 체계에서는 내각 기능 강화, 계획화 절차 정비, 단위특수화와 기관본위주의 억제, 법·제도 기반의 통제력 확보 등 내부 관리의 재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경제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보며, 북한이 정책 수행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기 발전 전략도 중요한 변화로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전면적 발전론'을 앞세워 지역·계층·산업 간 격차 해소를 국가 발전의 목표로 삼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발전 정책을 강화했다. "농촌발전 10개년 전략",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은 이러한 장기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로서, 지방공업 현대화나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변화가 일부 지역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접경 지역 관찰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와 이후에도 북한 내부의 건설 사업이 일정 수준 지속되었으며, 일부 도시의 주택 건설과 기반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증가, 물류 이동 확대, 개인 차량 관련 제도 변화 등도 북한 경제의 내부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간접적 신호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에서는 환율과 쌀값 상승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로 제시되었다. 최 연구위원은 가격 불안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국경 개방으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 지방·평양 건설 확대, 국가 상업망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향후 경제 안정성의 가장 큰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 측면에서는 북중 무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 역시 군사 분야 외에도 식량·에너지 조달, 노동력 파견, 철도·도로 협력 등 실질적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최은주 연구위원은 2026년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지난 5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며, 기초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공업 확대, 지방·평양 건설 지속, 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재정 여력 확보, 대외환경 변화 등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발 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사 회	임강택 (사단법인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

◆ [제113차 통일학포럼]

북한·통일연구 35년: 회고와 과제

-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16:00-18: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호암교수회관
- 주제: 북한·통일연구 35년: 회고와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5년 12월 15일(월), 김병로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를 모시고 북한 통일연구 35년: 회고와 과제를 주제로 제113차 통일학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김병로 교수의 정년 퇴임에 앞서 마련된 기념 포럼으로,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북한·통일·평화 연구의 과제를 성찰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포럼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와 학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온라인 참가자들의 질문도 실시간으로 접수·논의하며, 공간적 제약을 넘어 폭넓은 학술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김병로 교수는 강연에서 개인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한 연구, 2000년대 통일 연구, 2010년대 평화 연구로 이어지는 자신의 학문적 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냉전기 구조 분석에서 출발해 탈냉전 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 남북 교류 경험, 현장 조사와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북한 연구가 단순한 체제 분석을 넘어 사회·경제·문화·이념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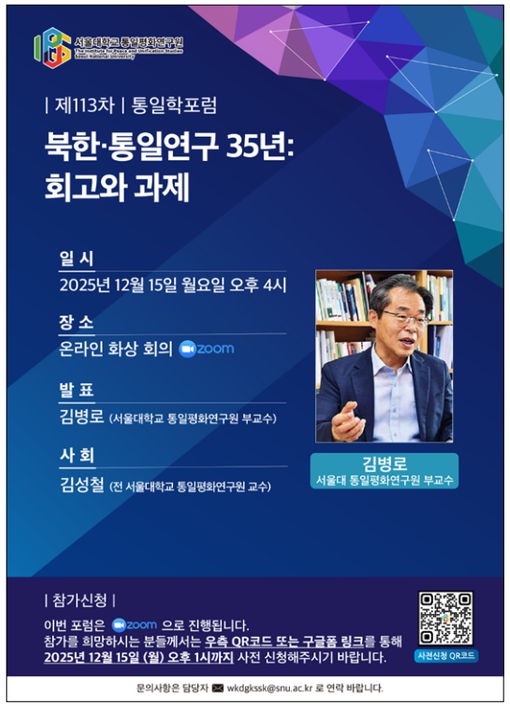
강연에서는 북한의 지역 자립 체제, 시장화 이후의 계층 변화, 이념 체계의 종교화, 그리고 최근 인적 역량 부족 문제와 교육 개혁의 필요성등 구체적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국제 학술 교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서 북한의 국제화와 인적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통일 연구가 평화 연구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단일 국가 중심의 통일 개념을 넘어 연성적·복합적 통일 모델, 남북 연합과 개방형 통일 국가 구상, 그리고 '한반도발 평화'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안보, 외교,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복합적 평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문제 역시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 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로 교수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제기되는 두 국가론, 북한 연구의 과학화와 AI 활용, 차세대 연구자 양성,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는 평화란 외부의 갈등 해소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개인 내부의 경계를 낮추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113차 통일학 포럼은 한 연구자의 학문적 여정을 넘어, 향후 북한·통일·평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프로그램	
발 표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사 회	김성철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제114차 통일학포럼]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

- 일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4월 3일(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황진태 교수를 모시고 "포스트 남북관계 국면에서 한반도 공동성장의 경로 모색"을 주제로 제114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평화연구원의 신혜란 통일학 센터장·지리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황진태 교수는 발표를 시작하며 최근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협력을 전제로 한 기존 접근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 자체가 변화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황 교수는 기존 '평화경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제시했다. 평화경제는 경제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전제에 기반해 왔으나, 실제로는 협력 중단 시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은 사례는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정치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한반도 공동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황 교수는 공동성장을 단순한 남북 간 교류 확대나 경제적 성과의 증가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발전 전략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황진태 교수는 단계적·다층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먼저 남한 접경지역은 외부 제약 없이 정책 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공동성장의 '전 단계'로 설정되었다. 황 교수는 접경지역의 저발전이 단순한 지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가 지역 불균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접경지역 발전이 통일 인식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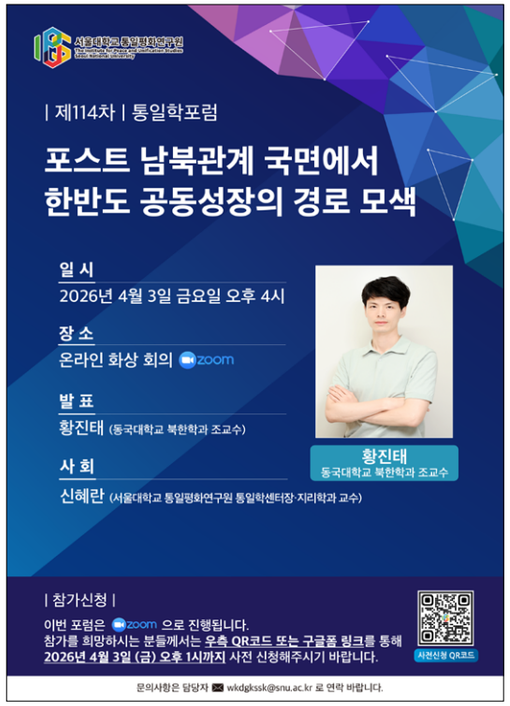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은 남북 간 직접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간접적 연결이 가능한 '중간 단계'로 제시되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대신 북·중·러 접경을 상대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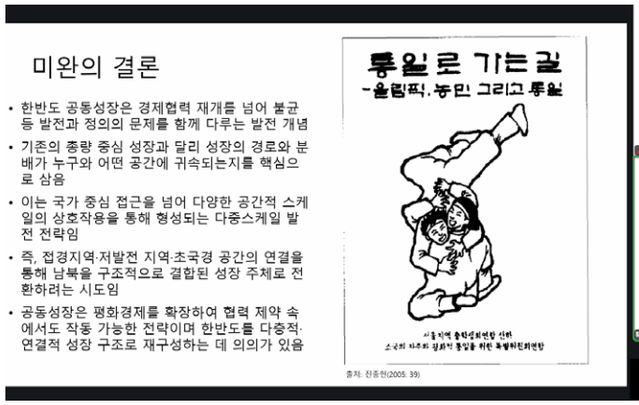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북한 저발전 지역은 남북관계 개선 시 협력 확장이 가능한 '장기 단계' 공간으로 설명되었다. 황 교수는 최근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로컬 단위의 남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성장이 단순한 경제협력 전략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과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발전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앞서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대북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황진태 교수는 한반도 공동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의 개념이지만,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평화경제를 단순히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개념으로서 공동성장이 향후 한반도 정책 논의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로그램	
발 표	황진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
사 회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지리학과 교수)





◆ [제115차 통일학포럼]

제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

- 일시: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14:00-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제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4월 24일(금) 강혜석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과교육 조교수를 모시고 "제9차 당대회와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15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5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강혜석 교수는 먼저 제9차 당대회의 전반적 기조를 "낙관과 자신감"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제8차 당대회 당시의 방어적·위기 대응적 태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인 국가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가 최악의 난국을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가까웠다면, 제9차 당대회는 변화된 국가 지위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당대회 무대 구성과 정치 상징의 변화를 통해 북한 권력의 성격 변화를 분석했다. 제6차 당대회가 김일성 개인의 카리스마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공간이었다면, 제7차 당대회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을 통해 혁명과 혈통의 계승을 강조했다. 반면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지도자 초상이 사라지고 당 조직과 제도적 권위가 부각되었으며, 제9차 당대회에서는 중앙 단일 연단과 수평적 좌석 배치를 통해 권위의 근거가 제도와 행정적 리더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제9차 당대회의 주요 변화를 이데올로기와 비전, 조직과 리더십, 대외·대남 전략의 세 차원에서 제시했다. 먼저 이데올로기와 비전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 개념이 전 분야와 전 지역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의 프레임이며, 단기적 전술이라기보다 체제 생존과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직과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정치 제도화와 개인 독재의 강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강 교수는 당대회 준비 기간의 연장, 부문별 협의 확대, 심의 절차의 정교화 등을 통해 북한이 정책 결정의 절차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후계 구도의 가시화와 유일적 영도 체계의 강조는 혈통론에 기반한 수령제와 권력 집중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대외 및 대남 전략에서는 "확장형 내적 균형 전략"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핵심 변화로 제시되었다. 강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을 중심으로 위협을 직접 상쇄하려는 내적 균형 전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중·러 삼각 연대를 통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확보에서 벗어나, 자체 군비 증강과 외교적 연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남 전략과 관련해 강 교수는 조국통일 담론의 약화와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수사적 조정이 아니라 북한의 핵 전략, 군사 전략, 국내 통치 전략과 연결된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선 요새화, 대남 타격 능력의 과시, 군사적 긴장 고조가 결합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이 위기 대응과 정비·보강의 단계를 넘어 안정의 공고화와 질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금속·화학·전력 등 전통적 기간산업을 유지하면서도 AI, 우주, 항공, 신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관광 산업 육성, 북·중·러 무역의 선택적 활성화, 지방발전 정책 등을 통해 관리형 자립과 제한적 개방을 병행하려는 구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강혜석 교수는 북한의 향후 경로를 세 가지로 전망했다. 첫째, 대남 군사적 위협의 현실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상수화될 가능성이다. 둘째, 북·중·러 연대가 군사·경제뿐 아니라 사회 통제와 체제 관리의 영역으로까지 심화될 가능성이다. 셋째, 당 중심의 제도화와 수령제적 권력 집중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램	
발 표	강혜석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과교육 조교수)
사 회	김용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제116차 통일학포럼]

북한의 탈단극 인식과 전략: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을 중심으로

- 일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탈단극 인식과 전략: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5월 22일 금요일, 전환기 북한학 연구의 쟁점이라는 대주제아래, 박아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를 모시고 "북한의 탈단극 인식과 전략: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16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 – 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6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박아름 교수는 최근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이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이 이란전쟁에 대해 예상보다 적은 보도를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것이 단순한 무관심인지, 아니면 전략적 판단에 따른 태도 변화인지 살펴보았다.

발표에서는 먼저 냉전기부터 이어져 온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란을 처음에는 미국과 가까운 국가로 인식했지만, 1970년대 이후 이란의 석유 국유화, 반이스라엘 입장,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계기로 자주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1979년 이란혁명을 거치며 북한은 이란을 반미·반제 노선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어 박 교수는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북한의 보도 양상을 비교하였다. 북한은 가자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이란전쟁에 대해서는 전쟁 전까지 이란 관련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실제 전쟁 발발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북한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방식과 대외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 교수는 두 전쟁에 대한 북한의 공통된 인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북한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유엔과 서방이 중동 문제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갈등을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약화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북한의 다극화 담론이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대외인식의 한 흐름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질서로 보고, 다극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새롭게 설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다극화 담론의 관계, 북한·중국·러시아가 말하는 다극화의 차이,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제3세계와 글로벌 사우스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동 정세 인식이 단순한 반미 담론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박아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사 회	김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제117차 통일학포럼]

분단 체제 속 탈북민 창작 활동과 북한 재현

- 일시: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15:00-16: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분단 체제 속 탈북민 창작 활동과 북한 재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6월 26일 금요일, 신해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을 모시고 "분단 체제 속 탈북민 창작활동과 북한 재현"이라는 주제로 제117차 통일학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학포럼'은 2006-2020년 총 75회 진행된 '통일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현재 제117차를 맞는다. 이번 포럼은 권혁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신해은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탈북민 창작활동에서 북한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탈북민 예술가들이 재현하는 북한이 한국의 분단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예술의 창작 원리와 미적 특징이 이주 이후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유지·변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사회의 분단체제 속에서 탈북민이 놓이는 위치성이 검토되었다. 신 박사는 한국 사회에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민족주의 담론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두 담론의 교차점에서 탈북민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동시에 '적국에서 온 타자'로 위치 지어진다. 즉, 탈북민은 포섭의 대상이면서도 배제의 대상이 되며,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이 안전한 구성원임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조건에 놓인다.

이어 신 박사는 이러한 위치성이 탈북민 창작활동과 북한 재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창작자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활동하게 되며, 특히 보수 진영과 구조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 진영은 북한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탈북민을 북한 체제의 문제와 인권 유린을 증언하는 존재로 의미화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탈북민의 목소리는 때로 북한 정권의 부정적 측면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은 탈북민 창작자들의 활동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표에 따르면 많은 탈북민 창작자들은 보수 성향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 사회에 연고와 기반이 부족한 탈북민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북한을 더욱 억압적이고 비극적인 공간으로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제약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창작자들은 자신의 기억과 정체성, 생계와 예술적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하게 된다.

신해은 박사는 탈북민 창작자들에게 북한이 단순히 억압과 결핍의 공간만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정치적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유년의 기억과 가족, 친구, 고향의 감각이 남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탈북민 창작자들에게 북한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재현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창작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기억, 정체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관객의 해석 방식 또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신 박사는 탈북민 작가의 작품이 북한 출신 작가의 작품이라는 정보와 함께 제시될 때, 한국 관객들이 그것을 북한 주민의 고통이나 수용소, 인권 유린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작가의 의도는 전혀 다른 개인적 기억이나 미적 경험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탈북민 창작활동에서는 작가가 재현하고자 하는 북한, 지원 단체가 기대하는 북한, 한국 관객이 해석하는 북한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신 박사는 탈북민 유튜버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대중문화의 소비 방식 속에서도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유튜버가 북한을 발전되거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할 경우,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빨갱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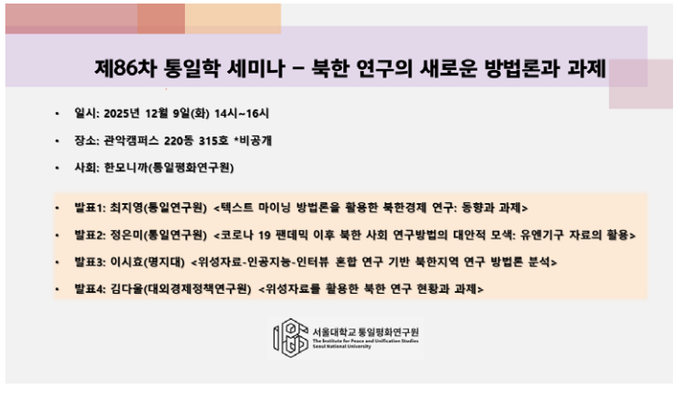
'간첩'이라는 식으로 낙인찍기도 한다. 반대로 북한을 남한보다 낙후되고 열악한 공간으로 묘사할 경우, 탈북민 유튜버는 한국 사회에 포섭 가능한 안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따라서 탈북민 유튜버들이 이러한 냉전적 문법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북한의 모습을 전략적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탈북민 공연예술단의 사례를 통해 북한 예술의 창작 원리와 미적 감각이 이주 이후 어떻게 지속·변형되는지를 살펴졌다. 탈북민 공연예술단의 레퍼토리는 북한 작품과 퓨전 작품으로 구성된다. 북한 작품은 북한의 가요,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퓨전 작품은 북한의 춤과 노래에 한국 대중가요, 트로트, 방송 안무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신 박사는 이러한 퓨전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 필요나 관객의 흥미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공연예술단은 한국 관객에게 낯선 북한 예술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관객에게 익숙한 음악과 형식을 결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한다. 이는 남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관객에게 전달하려는 목적과도 연결된다.
신 박사는 이러한 창작 방식이 북한 예술의 창작 원리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고 보았다. 북한 예술은 사상성, 인민성, 통속성, 혼종성을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한국 사회로 이주한 뒤 북한 체제의 사상성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한국 관객에게 민족적 정서와 남북 공존의 가능성을 전달하려는 새로운 목적성이 등장한다. 또한 관객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형식을 찾고, 익숙한 음악과 춤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인민성, 통속성, 혼종성이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 창작활동은 단순히 북한을 재현하는 예술이나 이주 이후의 경제적 적응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되었다. 탈북민 창작활동은 한국 사회의 분단체제와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실천이면서, 동시에 북한에서 형성된 예술적 원리와 미적 감각이 새로운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지속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이번 포럼은 탈북민 예술을 통해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냉전적 감각과 민족주의 담론의 이중성을 성찰하고, 북한 재현의 문제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발 표	신해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사 회	권혁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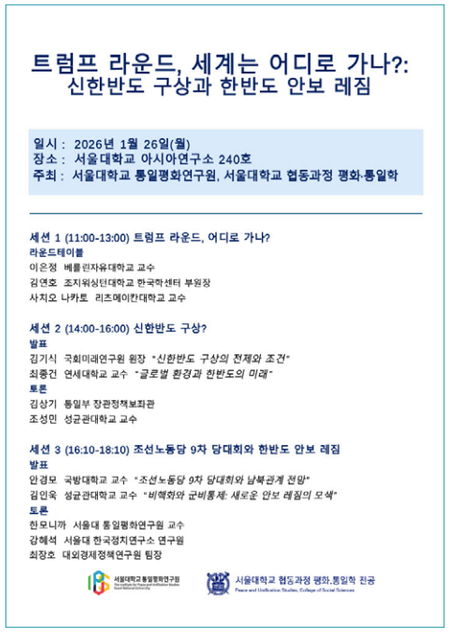
통일학 세미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학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다섯 차례의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86차 통일학세미나] 북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과제

-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4시~16시
- 사 회: 한모니까(통일평화연구원)
- 발 표: 최지영(통일연구원, 정은미(통일연구원), 이시효(명지대), 김다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 소: 관악캠퍼스 220동 315호(비공개)



[제87차 통일학세미나] 트럼프 라운드,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신한반도 구상과 한반도 안보 레짐

-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1:00~18:10
- 장 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40호
- 주 제: 트럼프 라운드,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신한반도 구상과 한반도 안보 레짐
- 주 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평화학센터

- 평화학포럼
- 평화학세미나

평화학포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연구와 관련하여 저명한 연구자 및 시민사회,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평화 의제로 활동 중인 연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평화학포럼(IPUS Peace Studies Forum)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평화학포럼은 평화 이론, 실천, 정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며 글로벌과 아시아 평화학, 동서양의 평화학을 논함으로써 평화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025년도에는 총 8차례의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 [제29차 평화학포럼]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 일시: 2025년 1월 9일 목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를 모시고 2025년 1월 9일 목요일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라는 주제로 제29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한모니까 교수는 정전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DMZ가 언제, 왜, 어떻게 구상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강연의 서두에서 한 교수는 DMZ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경험에 주목하였다. "DMZ는 많은 이들에게 남북 분단의 경계선이자 최전방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으며, 군 복무의 고생담과 무용담으로 기억되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한 교수는, 그와 동시에 이곳이 "BBC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로 보도할 만큼 고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존재하는 장소"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DMZ는 단순히 군사 공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DMZ의 이중성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한 교수는 "이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의 결과물로서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구상과 제도적 협상, 정책적 실천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복합적 공간"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어 한 교수는 DMZ라는 공간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일반에게는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실제 DMZ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어 연구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접경 시·군 지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이를 곧 DMZ 연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피상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후 강연은 본격적으로 DMZ 개념의 역사적 기원으로 넘어갔다. 한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의 시작을 1953년 정전협정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1950년 10월, 중국군의 참전 직후 영국 외무부가 한반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 장관 어니스트 베빈(Ernest Bevin)이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동북아 전체로 확전될 위험을 우려한 정세 판단이 작용했고, 그가 제안한 비무장지대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한만 국경 일대에 북한 정부와 무장 해제된 북한군이 임시 행정을 맡는 형태'였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영국의 제안은 미국과 유엔, 그리고 중국, 북한 측에 전달되었으나 당시 맥아더는 “북한 지역의 일부라도 넘겨준다면 이는 자유세계가 당하는 최대의 패배”라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주미대사 장면 역시 “한국 정부의 영토와 이익을 희생하는 제안”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이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설치 구상이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정전회담이 본격화된 1951년 7월 이후, DMZ의 위치와 범위, 관리 주체 등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되었다. 북중 측은 38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10km 후퇴한 지역을 DMZ로 설정하고, “6·25 이전 상태로 민정을 복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유엔군 측은 보다 북쪽에 위치한 20마일(약 32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주장하였다. 결국 “군사적 현실을 반영해 정전협정 체결 시점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후퇴하여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을 획정하고 쌍방이 2km씩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며, 이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13항에서는 72시간 내 군사 자산의 철수와 45일간의 위험물 제거(지뢰, 철조망 등)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측 사령관이 보고하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 교수는 “1953년 11월 3일, 제86차 군정위 비서장회의에서 유엔군과 북중 측이 군사분계선 표식 설치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현재의 군사분계선이 “1292개의 표식물로 구성된 ‘점의 연속체’”라는 점도 함께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감시소조(Joint Observer Team)의 위반 조사 활동 및 판문점 인근 정비 절차 등 구체적 실천 사례도 다루었다.

강연 말미에서 한 교수는 1960년대 이후 DMZ의 실질적 무장화가 진전되었음을 언급하며,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MZ는 사실상 무장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1970년대 초반부터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들이 남북 및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DMZ는 단선적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여파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정치적 갈등, 그리고 생태적 변화와 평화 담론이 축적된 복합적 구성물”이라며, “전쟁을 멈추고 정전을 유지하며 평화를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DMZ의 역사적 층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사 회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 [제30차 평화학포럼]

일상적 폭력과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

- 일시: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일상적 폭력과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를 모시고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일상적 폭력과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이라는 주제로 제30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인철 서울연구원 현안연구팀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서 허지영 교수는 평화학의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받는 '일상적 평화'와 '일상적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한반도 평화 논의에 주는 함의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허 교수는 기존의 '자유주의 평화' 담론이 서구 중심의 정치·경제 모델을 분쟁지역에 일률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접근이 내전 재발, 권위주의 회귀, 대량학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 개념을 소개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에 기반한 '로컬 오너십'과 '하이브리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허 교수는 '일상적 평화(everyday peace)'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분쟁 이후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위험과 갈등을 피하고자 선택하는 미시적 행동 양식, 즉 회피(avoidance), 모호함 유지(ambiguity), 의례적 예절(ritualized politeness), 식별(telling), 책임 회피(blame deferring) 등 '생존 전략'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허 교수는 이러한 전략이 단순한 대응 기제를 넘어, "사회의 갈등 문화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같이 갈등의 피해자로 인식되던 대상이 주체성을 가지고 평화를 구축해 가는 행위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결국 '평화란 다른 인간들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다'는 '평화의 관계적 본성(relational nature)'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 평화'와 '첫번째 평화'와 같은 개념을 통해 평화의 사회성과 호혜,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허 교수는 '일상적 폭력(everyday violence)'의 개념을 소개하며, 젠더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 개념이 평화학의 한 축을 구성함을 설명하였다. 일상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에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상으로 수용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미묘한 폭력도 명백한 폭력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이는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허 교수는 이러한 폭력은 '배제와 차별', '거부(rejection)와 배척(ostracism)'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특정 집단에 대한 미묘한 차별과 모욕, 고스팅(ghosting) 등은 사회적 소속감을 해치며, 이러한 일상적 폭력이 지속될 경우 사회에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 귀환이민자, 결혼이주자 등 다문화 구성원들이 이러한 일상적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러한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banal racism), 즉 신인종주의의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문화 차이로 보지 않고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통일 이후 또는 남북한 자유 왕래 상황에서 이질적인 구성원 간 일상적 폭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평화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상적 평화의 관점을 통해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평화구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
사 회	문인철 (서울연구원 현안연구팀 연구위원)

◆ [제31차 평화학포럼]

‘협력적구술사’를 통한 냉전 대립에 균열 만들기

- 일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협력적구술사’를 통한 냉전 대립에 균열 만들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조일동 한국한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부교수를 모시고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협력적구술사’를 통해 냉전 대립에 균열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31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영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조일동 교수는 ‘협력적 구술생애사(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의 개념과 실천을 중심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탈식민과 냉전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6~8명의 고령 에스닉 코리안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함께 지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협력적 구술사 실험이었다.

이 구술 방식은 단일한 개인의 생애사를 수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참가자들이 서로의 삶을 듣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집단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애사가 함께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이때 의례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평등성과 공동체성이 형성되며, 이는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잠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와 감각을 창출하는 장으로 작동했다.

조 교수는 특히 귀환이주 코리안 디아스포라—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사할린 동포, 탈북자 등—의 구술사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탈)식민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형성된 존재이며, 한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주변인’ 혹은 ‘타자’로 간주된다. 구술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족사와 식민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탈식민 냉전의 현재성과 지속성을 드러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로, 2013년 한 구술 모임에서 만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 박순이 씨와 가해자로 지목되는 만주군 출신 장교의 딸 이원숙 씨 간의 상호작용이 소개되었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가족사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를 향한 분노와 거리감보다는 상대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이념·국적·체제를 넘어선 인간적 공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이 협력적 구술사의 경험이 화해와 치유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피해-가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단일한 민족 서사에 가려졌던 내부의 ‘다름’을 드러내며,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부교수)
사 회	최은영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조교수)

◆ [제32차 평화학포럼]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

-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를 모시고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라는 주제로 제32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전의령 부교수는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화두가 오늘날 널리 이야기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과 딜레마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또 다른 이름인 '인류세' 담론과, 이를 극복하려는 '탈인간중심주의' 담론이 각각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분석했다.

전 교수는 먼저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이 '망가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인류 전체의 것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론은 인류를 초역사적, 초계급적인 단일한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인간 내부의 차이와 타자성,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역사와 권력이라는 문제를 제거'한다. 실제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18세기 영국에서 발달한 '화석 자본(fossil capital)'이며, 이는 '자본가가 노동을 더 잘 통제해 이윤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추동된 것이었다. 결국 '인류'라는 보편적 이름 뒤에 숨어, 기후위기를 초래한 구체적인 역사와 불평등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모순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강연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24%) 등 소수의 부유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 최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하는 등 책임의 불평등은 명확하다.

다음으로 전 교수는 '탈인간중심주의'의 딜레마를 제시했다. 이 사상은 비인간을 인간과 함께 세상을 '공동생산(co-produce)'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담론이 '인간-비인간 얽힘'에 집중할 때, 정작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간 사회 내부의 불평등, 착취, 모순과 같은 균열을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구호 역시 북극곰 같은 '좋은 비인간'과 모기 같은 '나쁜 비인간'을 구분하며, 이미 인간의 필요에 따라 비인간을 선별하고 위계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인류세와 탈인간중심주의 담론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비판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말을 인용해 "생태학적 위기의 열쇠는 생태학 그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와 재가입, 그리고 재탈퇴 가능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 전체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와 정치 체제의 책임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인간 사회 내부의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로그램	
발 표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
사 회	이승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 [제33차 평화학포럼]

정동의 포획과 탈주: 군대 예능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재현하는 몸들

- 일시: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16:00-17: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정동의 포획과 탈주: 군대 예능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재현하는 몸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 그 다양성에 대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황인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강사를 모시고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정동의 포획과 탈주: 군대 예능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재현하는 몸들"이라는 주제로 제33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연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강사가 좌장을 맡았고, 환영사와 함께 포럼의 막을 올렸다.

황 박사는 비판적 군사연구(Critical Military Studies)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정치학에서 군사연구가 주로 전쟁, 군사력, 병력 운용 등 거시적 차원에만 집중하며, 개별 병사의 신체 경험이나 일상적 감각은 분석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즉, 국제 정치에서 평화와 전쟁을 다루는 '진지한 연구'에서도, 개인이 느끼는 가장 내밀하고도 확실한 고통과 신체적 경험은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군사연구는 이러한 개인적·미시적 신체 경험과 정동(affect)을 포착하여, 국가와 군사, 국제정치 구조가 개인과 사회의 감각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고 통제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 박사는 정동을 분석한 사례로, 〈가짜 사나이〉와 〈백서〉를 비교하였다. 그는 먼저 정동의 개념을 감정(emotion)과 구분하며, "몸의 경험에 주목할 때 드러나는 '몸의 잠재력'"이라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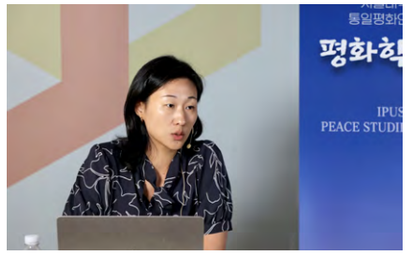
〈가짜 사나이〉는 일반인부터 유명인사까지 다양한 참가자가 특수부대 훈련을 체험하며 극한의 신체적 고통을 견디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이다. 황 박사는 이 프로그램이 신체를 자기계발적·영웅적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군사화된 남성성과 경쟁적 자기관리 담론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즉, 신체적 고통의 '극복'을 통해 정동이 포획(capture)되고, 결과적으로 군사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백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제작한 영화로, 징역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몸'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군사주의적 서사가 포획하려는 정동을 탈주(flight)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몸의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군사주의적 정동과 남성성 담론에 균열을 만들고, 관객이 새로운 삶과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한다.

황 박사는 이어 정동 정치(affective politics)의 개념을 강조했다. 정동 정치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정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분석하는 틀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저항과 탈주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 박사는 정동 정치가 평화정책과 사회적 개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단순한 조약 체결이나 국가 단위의 정책보다, 현장에서의 대화,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여성과 청년 중심의 갈등전환 활동을 통한 장기적 평화 구축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동 정치의 관점에서 사람 간 신체적·정서적 만남과 공감 경험은 평화 구축 과정의 기초가 되며,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장기적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지으며 발표를 마쳤다.

프로그램	
발 표	황인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사 회	김연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강사)



◆ [제34차 평화학포럼]

고난의 행군이 남긴 영양문제

- 일시: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고난의 행군이 남긴 영양문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삶과 인도적 평화: 식량, 영양, 그리고 건강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하에, 이수경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모시고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고난의 행군이 남긴 영양문제"라는 주제로 제34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윤지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환영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수경 교수는 먼저 좋은 영양상태가 건강의 기본 바탕이며, 영양 불량은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공중보건 문제임을 강조했다.특히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인 식품 섭취와 신체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영양실태를 다수의 국제기구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1990년대 이후북한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양 불량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식 통계 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WFP와 FAO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식품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최소 에너지 필요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의 핵심인 "고난의 행군이 남긴 영양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먼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북한의 영양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자연재해로 식량 공급 체계가 무너진 당시, 5세 미만 아동의 62.3%가 만성영양불량(stunting), 15.6%가 급성영양불량(wasting)을 각각 겪었다. 당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 영양 불량률을 기록했다. 그는 고난의 행군이 남긴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북한 사회의 건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대적 건강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수경 교수는 생애 초기 영양 경험이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애기원 건강질환(DOHaD) 이론을 적용하여, 태아기나 유아기와 같은 생애 초기의 영양 불량 경험이 성인기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를 근거로, 탈북 아동들이 남한 정착 후 신체 성장과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비만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세대가 성인이 된 현재, 북한 사회의 질병 구조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당 세대의 건강 문제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이 향후 북한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주요 사망 원인이 이미 비감염성 질환(NCDs)으로 이동했음을 지적하며, 영양 문제를 단순한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건강 위험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북한의 보건 정책 변화와 향후 협력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한은 최근 SDG 달성을 위한 국가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 퇴치'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러시아·베트남 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단순한 원조보다 지식 기반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중시한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학교급식과 영양플러스 사업 등 모자보건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수경 교수는 고난의 행군 세대의 영양 문제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영양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평화구축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덧붙이며 발표를 마쳤다.

프로그램	
발 표	이수경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사 회	윤지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식품영양학과 교수)

◆ [제35차 평화학포럼]

북한의 농업 및 식량 현황

-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북한의 농업 및 식량 현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삶과 인도적 평화: 식량, 영양, 그리고 건강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하에, 김도순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를 모시고 2025년12월 4일목요일 "북한의 농업 및 식량 현황"이라는 주제로 제35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환영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김도순 교수는 먼저 북한의 농업·식량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농업 환경, 생산 구조, 그리고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대부분의 가용 경지(Available Arable Land)를 경작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기후·토양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작물 생산성이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농경지는 남한보다 넓지만, 산악지형이 많고 밭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경작 여건은 열악하다. 평균 기온이 낮아 재배 가능한 기간이 짧고, 남한보다 강수량이 적어 특히 봄철 가뭄 시기에는 파종이 지연되거나 초기 생육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반복된다. 토양의 유기물·유효인산·치환성 양이온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도 작물 생산성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환경적 제약이 실제 생산량에도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성은 남한의 약 53%, 채소·과일·축산물은 15% 수준에 불과해 농업 기반의 취약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대홍수 이후 생산 기반이 붕괴된 뒤, 토양 황폐화·농지 유실·관개시설 부족 등이 누적되며 생산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제재와 자재 부족으로 농약·비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산성의 장기적 저하가 고착화되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김도순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개선, 토양 비옥도 회복, 관개시설 확충 등 재배 기반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농업협력의 실질적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발 표	김도순(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사 회	임정빈(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제36차 평화학포럼]

한국의 자살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나

- 일시: 2025년 12월 18일 (목)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한국의 자살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삶과 인도적 평화: 식량, 영양, 그리고 건강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이요한 고려대학교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 소장(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을 모시고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한국의 자살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나"라는 주제로 제36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노진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교실 교수가 사회 및 환영사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요한 소장은 자살 연구와 북한 보건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적 사실과 해석을 결합한 '에세이적 강연'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풀어냈다.

먼저 이 소장은 한국 자살률의 장기 추이를 통해, 자살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증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살률 상승이 반복되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는 자살예방법 제정, 연금·복지정책, 자살수단 관리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되었다. 다만 2015년 전후부터는 청소년 및 20~30대(특히 여성) 자살률의 재상승이 두드러지며, 비교 통계상 한국의 젊은 여성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한 경고로 제시되었다.

또한 원인 분석에서도 자살이 단지 '정신질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요한 소장은 2013~2020년 자살 사망자 전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이력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부채·생활고 등)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집단이 광범위하며, 심지어 정신질환 징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문제만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근 청년층에서는 우울감·외로움·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이전 세대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며, 이를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서 행복감(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 틀로, 이 소장은 뒤르켐(É. Durkheim)의 관점을 소환했다. 자살은 개인의 취약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사회통합의 약화(연대·관계·신뢰의 붕괴)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돈이 "거의 유일한 안전망"으로 체감되는 배경에 공동체적 연결의 약화가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그 뿌리 중 하나로 분단 체제가 만들어온 이분법적 사고(피아 구분), 낙인과 혐오, 집단적 트라우마의 지속 등을 언급했다. 분단이 일상 속 관계의 방식까지 파고들어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우리 안의 평화"가 소진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요한 소장은 요한 갈퉁(J. Galtung)의 적극적 평화개념을 연결해, 자살 예방과 평화의 과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점을 강조했다. 고위험군 개입에 더해 보편적 개입(사회적 지지 강화, 부채·위기 완충, 차별·낙인 완화, 회복탄력성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는 복지·보건 정책인 동시에 사회 통합을 복원하는 평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거대한 화해를 단번에 요구하기보다, 일상의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작은 평화"를 연습하고 축적하는 것이 더 큰 평화 담론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이요한 (고려대학교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 소장,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사 회	노진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교실 교수)

◆ [제37차 평화학포럼]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전쟁과 평화의 인문학

- 일시: 2026년 4월 29일 (수)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전쟁과 평화의 인문학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전쟁과 평화]라는 대주제 아래 이찬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평화학전공 교수를 모시고 "전쟁에게 평화를 묻다: 전쟁과 평화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제37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강혁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아시아학과 조교수가 사회를 맡아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다.

이찬수 교수는 종교학에서 평화학으로 이어진 자신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정치·외교적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 집단, 언어, 종교, 국가의 차원에서 성찰하는 인문학적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전쟁의 원인을 표층적 원인과 심층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정치 권력 투쟁, 영토 분쟁, 경제적 이권, 외교적 실패와 같은 가시적 원인뿐 아니라 종교·문화적 신념의 충돌, 이념 갈등, 집단 정체성과 타자의 비인간화, 역사적 트라우마, 사회적 불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특히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나 명분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래된 적대성, 구조화된 폭력,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태도가 서로 얽히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20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 등을 사례로 들며 전쟁의 명분과 실제 동기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살폈다. 그는 전쟁의 표면에는 안보, 동맹, 자원, 체제 방어와 같은 명분이 제시되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주의적 팽창, 민족주의적 긴장, 제국적 향수, 정체성의 충돌, 내부 불안의 외부화 등이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이 교수는 전쟁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라는 법적·외형적 기준을 넘어,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의 역사적·문화적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중심성'이었다. 이 교수는 전쟁과 갈등의 근원에는 자신과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자기중심성은 집단 정체성으로 확장되고, 근대 민족국가는 '우리'와 '그들', '동지'와 '적'을 구분하며 외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경계 설정을 '점선'과 '실선'의 비유로 설명하며, 경계가 넘나들 수 있는 점선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소통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선처럼 굳어질 때에는 차이가 대립으로, 타자가 적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한반도의 반공과 반제, 남북 간 적대 역시 이러한 자기중심적 해석과 경계의 실선화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평화라는 말 자체도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각 주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와 안정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자기중심적 평화주의'로 설명하며, 강자의 평화는 기존 질서의 안정으로, 약자의 평화는 불평등의 제거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도 한국에서는 광복절, 북한에서는 조국해방기념일,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로 불리고, 6.25전쟁 역시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으로 불리듯이, 전쟁과 평화를 이해하는 언어는 주체의 위치와 기억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반복·축적될 때 갈등이 사고방식과 언어, 제도, 일상적 관계 속에 스며들어 '갈등의 문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평화의 가능성을 '실낱같은 평화'와 '감폭력(減暴力)'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자아의 불안정성, 언어의 제한성, 집단의 비도덕성, 근원적 부정성이 얽혀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평화는 결코 단순히 완성되거나 보장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기보다, 현실 속에 작동하는 물리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 곧 '감폭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자기 인식의 심화, 언어의 겸손, 타자의 관점에 대한 개방성, 시민사회와 종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평화를 단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평화들'로 이해하고 조율해 가는 평화다원주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발 표	이찬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평화학전공 강사)
사 회	강혁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아시아학과 조교수)

◆ [제38차 평화학포럼]

이란전쟁과 중동 안보(불안)

-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이란전쟁과 중동 안보(불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5월 21일 목요일, [전쟁과 평화]라는 대주제 아래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모시고 "이란전쟁과 중동 안보(불안)"이라는 주제로 제38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황인택 탐페레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이란전쟁을 둘러싼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그로 인한 중동 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자리였다. 한새롬 교수는 전쟁의 주요 전개 과정과 미국의 이란 공격 배경, 이란 정권의 대응을 살펴보고, 이를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라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했다.

한새롬 교수는 먼저 2023년 이후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어 온 과정을 짚었다. 특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주요 군사·핵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한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산발적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단순한 전략적 계산이나 세력균형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 및 핵무기 개발 능력 제거, 대리세력 지원 차단, 해군 전력 약화 등을 공격 목표로 제시했으나, 전쟁 이전과 전쟁 과정에서 제시된 명분은 이란 시위대 보호, 핵 협상 유도, 임박한 위협 제거, 정권교체 가능성 등으로 변화해왔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미국이 왜 또다시 중동에서 군사개입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물리적 생존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이다. 한새롬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미국 예외주의와 '승리 담론'이 반복적으로 작동해왔으며, 이는 중동에서의 군사개입을 "관리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미국 외교 담론 속에서 이란은 오랜 기간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타자로 재현되었고, 이러한 이란 타자화는 미국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국제질서의 수호자이자 도덕적 행위자로 위치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다음으로 한 교수는 이란 정권의 강경 대응 역시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GCC 국가 내 미군 기지, 핵심 경제 인프라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는 등 예상보다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한 교수는 이를 단순히 이란 내부 강경파의 영향력만으로 설명하기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형성된 '저항의 정체성'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란 정권은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시아파 이데올로기, '저항의 축' 담론을 통해 체제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외부의 군사적 공격은 오히려 이러한 저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새롬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개입이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전복시키기보다, 역설적으로 이란 내부 정치 엘리트의 결집과 저항 담론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 내부에서는 2009년 녹색운동, 2017–18년 데이 시위, 2019년 시위,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 등 체제에 대한 사회적 도전이 지속되어 왔으나, 외부의 군사개입은 이러한 내부 변화의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로그램	
발 표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사 회	황인택 (탐페레 평화연구소 연구원)

◆ [제39차 평화학포럼]

‘인간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침략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

- 일시: 2026년 6월 10일 (수)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인간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침략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6월 10일 수요일,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를 모시고 “‘인간 통제’라는 픽션: 2026년 이란 침략전쟁과 자율살상무기 국제규범의 공백”을 주제로 제39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용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아영 대표는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샤자레 테예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와 인간 통제의 문제를 검토했다. 발표자는 해당 사건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관리와 검증 실패,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통해 ‘인간통제’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형식적 장치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AI 기반 군사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발표자는 해당 시스템이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적 식별과 타격 결정을 지원하며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적 선정과 타격 과정이 압축될수록 충분한 검토와 숙고의 시간이 줄어들고, 오류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샤자레 테예베 초등학교 폭격 사건 역시 AI 자체의 오류라기보다 데이터 갱신 실패와 인간 검증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책임 공백(Accountability Gap)’의 문제로 해석했다.

논의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를 둘러싼 국제규범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문아영 대표는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에서 진행 중인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개념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맥락에 적합한 인간의 판단과 통제(Context Appropriate Human Judgment and Control)’ 개념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완전 금지와 규제 중심 접근 사이의 논쟁,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정의 문제, 민간 기술의 군사 전용 문제 등이 현재 국제규범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원합의(Consensus) 원칙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2026년 CCW 검토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표는 한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도 검토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는 AI 군사 활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안보 예외 조항과 국방 인공지능 관련 법안 등을 통해 군사 분야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분야가 규제와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AI 기반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문민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아영 대표는 군사, 기술, 정치,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제규범,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통제하고 성찰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살상무기체계와 AI 군사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 학계,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표는 마무리되었다.

프로그램	
발 표	문아영 (사단법인 피스모모 대표)
사 회	정용택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제40차 평화학포럼]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 이란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 일시: 2026년 6월 24일 (수) 17:00-18: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 이란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6월 24일 수요일,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를 모시고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 이란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주제로 제40차 평화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구기연 교수는 최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상황을 국제정치적 갈등만이 아니라, 이란 내부 사회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 교수는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의 전개 과정, 이란 정치 구조와 혁명수비대의 역할, 이란 시민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중동 평화의 현재적 조건과 한계를 분석했다. 특히 전쟁과 휴전 협상이 국가 간 합의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경험과 요구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구 교수는 2025년 6월 12일 전쟁 이후 이란이 겪은 군사적·경제적 위기를 설명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언' 작전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이어진 휴전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지만, 이란 사회에는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남겼다. 리알화 가치 하락, 제재 복원, 물가 상승, 식료품과 의약품 가격 폭등은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압박했고, 정권의 외교·핵 노선이 민생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2025년 말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의 파업과 전국적 시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6년 2월 제2차 전쟁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조의 변화를 짚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계는 이란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곧바로 붕괴하기보다는 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군부적 통치 구조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구 교수는 혁명수비대가 단순한 군사조직이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권력기관이며, 전쟁 이후 이란 체제가 오히려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기연 교수는 이란과 주변 중동 지역의 갈등이 종파, 안보, 에너지, 국제정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잇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와 '저항의 축' 전략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이는 수니파 걸프 왕정 및 이스라엘과의 구조적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 2026년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지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동의 불안정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에너지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드러났다.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이란 시민사회의 역사와 현재가 다루어졌다. 구기연 교수는 이란 시민사회를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동원 경험이 축적된 사회로 설명했다. 1999년 테헤란대 시위, 2009년 녹색운동, 2017~2018년 경제 시위,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 2025~2026년 전국 시위는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주체와 요구가 점차 확대되어 온 흐름으로 제시되었다. 학생과 중산층 중심의 개혁 요구는 노동계급, 여성, Z세대, 상인, 전 계층의 문제 제기로 확장되었고, 요구의 내용 역시 선거 정당성, 경제 문제, 신체 자기결정권, 체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비판으로 심화되었다.

이란 시민사회 내부의 복합적인 정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 국면에서 이란 시민들 사이에는 반미·반이스라엘 정서와 반체제 정서가 동시에 존재하며, 외부 공격은 역설적으로 민족주의적 결집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슬람정권에 대한 지지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는 "우리는 정권과 다르다"는 시민사회의 저항 담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페르시아어 SNS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여론이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사회는 체제 지지, 체제 내 개혁 요구, 근본적 변화 요구가 공존하는 분열된 여론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정권의 생존은 반대의 부재가 아니라 반대를 관리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구기연 교수는 중동 평화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휴전이나 양해각서의 체결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전은 전쟁의 종결이라기보다 미결 상태의 유예일 수 있으며, 핵 문제, 레바논 전선,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 이란 내부의 정당성 위기 등 여러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발표자는 이란의 진짜 위기는 외부 폭격만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 위기, 사회적 단절, 경제적 붕괴, 시민사회의 좌절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동 평화를 논의할 때는 국가 간 협상뿐 아니라 이란 사회 내부의 동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중동의 전쟁과 평화 문제를 국제정치의 거시적 구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경험과 요구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구기연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중동 평화는 요원한가"라는 질문이 결국 "누구를 위한, 누구의 평화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발 표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사 회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평화학세미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인문학 연구의 지평 확대와 교육-연구 연계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평화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평화학세미나는 그동안 평화연구를 선도해 온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오랜 경험과 성과를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기획되었다. 2025년도에는 총 두 차례의 평화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1차 IPUS 평화학세미나

- 일시: 2025년 5월 16일(금) 19:00-20:3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10동 210호)
- 연사: 최영준 전 통일부차관
- 주제: 한반도 분단의 배경, 원인과 시사점

제62차 IPUS 평화학세미나 - 국제관계연구회 공동주최

- 일 시: 2026년 5월 30일(토) 15:00~
- 장 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222동) 308호
- 주 제: 국제질서의 변환과 국가전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서울대학교는 정부 및 사회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통일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업명칭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으로 변경해 평화, 인권, 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구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년과제를 선정, 2024년부터는 사업형 과제를 신설하여 통일 대비 지식확충, 인재양성 및 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다자협력 영역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기관 및 세부사업

2025

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명
건설환경공학부	김용일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의 재난 회복탄력성 분석: 홍수 피해를 중심으로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박용성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동해안 연안 침식 분석
교육종합연구원	모경환	시민교육을 위한 평화교육의 재구성: 통일 담론을 넘어 사회적 갈등 해결로
국제대학원	한정훈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2기 집행위원회의 안보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전망
국제대학원	이현태	북러관계 강화가 북중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지성태	체제전환국의 농민조직 발전이 북한 농촌개혁에 주는 시사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안동환	북한 농촌지역 공간구조와 지역경제 분석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임정빈	FAO-GAEZ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 농업생태기후대 변화와 잠재 농업생산성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광수	북한 지역 지속 가능 농업 지원을 위한 옥수수 및 알팔파 재배 적합 지역 전망
미래전연구센터	김상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핵-AI 역량 연구
보건대학원	유승현	건강증진 관점에서 본 북한의 공중보건과 과제
사범대학	신윤정	청년 대상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개발 및 다중양식(multi-modal) 자료 기반 효과성 검증
아시아연구소	김태균	아프리카-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북한 인권 인식에 대한 연구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박형동	한반도 열에너지 활용방안
인문대학	권오영	단군릉의 발견과 북한 정권의 통일정책 변화
인문대학	방민호	남북 작가 및 대중이 함께하는 문학 창작 워크숍
치의학대학원	명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치과 의료 서비스의 역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치과 의료진의 사회적 지지 및 인식 차이의 규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의 학문적 기반 마련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AI 기반 북한이탈주민 구강건강 개선 사업: e음헬스+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북한 보건의료 최신 현황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일의료 교과서 개정 기반 수립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남북 기후변화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보건지소 모델 개발(3차년도)
한국행정연구소	박순애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
헌법·통일법센터	이효원	남북한의 헌법제·개정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규범적 연구
환경계획연구소	장수은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간선도로의 교통량 추정
환경계획연구소	윤순진	북한 가정의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가전제품과 햇빛판 보급 추세를 중심으로
환경계획연구소	임저스틴희준	북한 도심공간의 열쾌적성 분석과 기후 적응 전략 연구

2026

기관명	사업 책임자	사업명
간호대학	정형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챗봇 시스템 개발 및 평가
공과대학	권영상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북한 도시경관의 상관성 실증 연구-평양시 3차원 공간분석과 가상현실(VR)체험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과대학	김용일	시계열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의 도시전환 분석: 공간 확장, 기능 재편, 열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대학원	이현태	러시아 극동과 한반도 북부의 지역경제 재편: 북중러 협력 심화의 구조적 함의
국토문제연구소	박수진	한반도학 교재개발: '이분법을 넘어, 한반도의 자연–사회–역사–미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지성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의 쌀산업 지원모델 연구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한 농업생산 변화 전망모형 구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김광수	북한 지역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벼·밀 재배 적합 지역 전망
미래전연구센터	김상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한AI안보넥서스와한반도지정학
보건대학원	유승현	북한의 일상 소재 동영상의 건강증진 콘텐츠 다각적 분석: 내용과 맥락의 통합고찰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안동환	북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농촌지역 공간구조 변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안두환	역사 속의 전쟁과 평화
사회과학대학	신혜란	동아시아 지역 평화의 일상적 구성: 기술-매개된 이주자의 경계 감각
사회과학대학	이정환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붕괴와 한반도 평화레짐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김종학	생태환경·보건의 다자협력과 남북한 신뢰구축 메커니즘
사회발전연구소	임동균	고립의 시대, 평화 통일의 사회적 조건: 한국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와 통일에 대한 미래 인식
생활과학대학	진미정	탈북민 역사 30년: 중장년 1세대와 청년기 1.5세대/2세대의 동질성과 이질성
생활과학대학	박주연	남북한 의생활 용어 통합 및 표준화 연구: 정착지원과 학교교육 활용
인문대학	방민호	2026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 창작 워크숍-남북한 작가와 시민들의 만남(제2회)
치의학대학원	임정준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포용적 치과 진료 가이드라인 (Inclusive Dental Clinical Guidelines)' 개발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북한 보건의료 및 한반도 보건안보 동향 월간 분석 연구
통일의학센터	문진수	통일의료 및 한반도 보건안보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 교육 운영
헌법·통일법센터	이효원	남북한 법률체계의 재정비와 규범력 확보방안 모색
환경계획연구소	장수은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도로 네트워크 거점 도시의 교통수요 특성 규명
환경계획연구소	윤순진	북한 교육정보화 현대화와 학교 에너지 조건: 고급중학교의 교육 경험과 학습권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 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10:00~16:00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층(515호, 516호, 517호, 519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김범수 원장)은 2026년 3월 13일 「제11차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과학문이 통일과 평화 연구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2015년부터 11년간 지속해 온 본 사업을 통해 통일학과 평화학의 기반을 다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 2025년 사업에는 총 25개 사업팀이 참여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 2026년 3월 13일(금)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5층에서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세션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오후 세션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5개 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교육 및 아웃리치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 제24기 통일아카데미
- 제13기 평화아카데미
- 제3기 최고지도자 과정
- 제5회 시흥시민평화학교
- 제5회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8개 지역거점국립대(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와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는 세부사업으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사업취지 |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국립대학들이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해 왔던 통일·평화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모색
-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이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 세부사업 |

1. "한반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공동연구

- 공동 연구팀은 UN ESCAP,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 UN ECOSOC 산하 High Level Political Forum(HLPF)와 전문가 미팅을 진행
- 2019년 : SDGs의 Peace (목표 16)와 Partnership (목표 17) 템플릿 작성
- 2020년 : SDGs 목표 중 보건의료, 교육, 산림녹화 세부 영역을 선정하여 연구
- 2021년 : SDGs 목표 중 빈곤, 젠더, 경제성장, 불평등을 중심으로 연구
- 2022년 : SDGs의 남은 목표인 빈곤, 물, 인프라, 도시, 불평등, 기후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SGDs의 모든 목표를 분석하고 템플릿 작성 완료

2. "평화실현을 위한 갈등 해결의 정치" 공동연구

- 이념 갈등, 분배 갈등, 문화적 갈등, 무역 분쟁, 무기개발 경쟁 등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

3. "평화와 민주주의" 공동연구

-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적·국내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체제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

4. 통일평화 공동 교육단 구성 및 운영

-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토목공학, 교육학, 과학,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강사진을 구성하여 각 대학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5.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 네트워크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연구 및 포럼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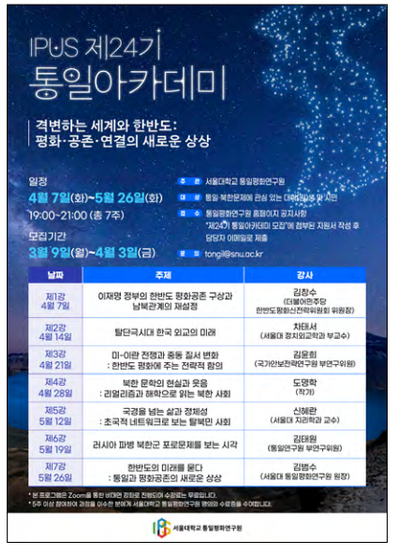
| 사업연혁 |

날짜	내용
2023.11.17.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공동학술회의: 신냉전 시기 대학 통일평화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3.08.16.-19.	202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여름캠프
2022.11.20.-21.	부산대학교 제주 평화답사 개최
2022.10.04.	서울대학교 제10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2.08.26.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라운드 테이블)
2022.08.17.-19.	제3회 동해평화학교 개최
2022.05.06.-12.04.	전북대학교 호남권역 평화통일아카데미 개최
2022.04.05.	서울대학교 제21기 통일아카데미 개최
2022.02.18.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공동학술회의: "민주주의와 하반도 평화"
2021.10.05.	서울대학교 제9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1.08.25.-27.	제2회 동해평화학교 개최
2021.04.06.	서울대학교 제20기 통일아카데미 개최
2021.02.0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연차총회 및 학술회의: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2022.10.06.	서울대학교 제8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20.07.14.	제주대학교<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참여
2020.05.30.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학술회의: "한반도 SDGs 지표설정과 개발전략"
2020.02.1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협의체 연차 총회
2020.02.13.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학술회의: "한반도 SDGs 지표설정과 남북협력의 과제"
2020.02.04.	UNICEF MICS, UN HLPF, 주유엔한국대표부 협력 논의
2020.01.19.	UN ESCAP 북한 SDGs 현황 및 협력 논의
2019.10.01.	서울대학교 제7기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9.30.	전북대학교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9.26.	부산대학교 평화아카데미 개최
2019.06.25.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출범 학술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공헌 방향 모색"
2019.06.01.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사업 개시
2019.05.24.	운영회의 개최

제24기 통일아카데미

IPUS 통일아카데미는 북한 및 통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과 대학(원)생 및 일반시민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정책, 학술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6년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된 제24기 통일아카데미는 남북관계 전망 및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중동 정세,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으로 읽는 북한 사회, 탈북민 사회의 현실 등 다채로운 주제를 선정해 수강생들과 함께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은 총 72명으로 그중 34명이 수료하였다. 수강생은 대학생 21%, 대학원생 33%, 일반시민 46%로 학업 중인 학생과 일반시민이 골고루 분포되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계열이 44%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 21%, 인문학과 기타 계열이 13%, 평화·통일학 전공이 1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시민의 경우 직업별로 전문직 종사자가 3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기타 일반직 및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되었다. 수강생의 연령대는 20대가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4%, 40대와 30대가 각각 22%, 15%로 그 뒤를 이었다.



| 프로그램 |

- **1강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과 남북관계의 재설정**
  김창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위원장)
- **2강 탈단극시대 한국 외교의 미래**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 **3강 미-이란 전쟁과 중동 질서 변화: 한반도 평화에 주는 전략적 함의**
  김윤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 **4강 북한 문학의 현실과 웃음: 리얼리즘과 해학으로 읽는 북한 사회**
  도명학 (작가)
- **5강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통일과 평화공존의 새로운 상상**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6강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문제를 보는 시각**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7강 국경을 넘는 삶과 정체성: 초국적 네트워크로 보는 탈북민 사회**
  신혜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제13기 평화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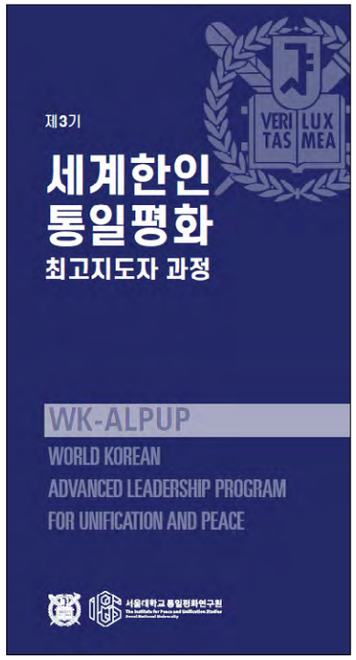
2013년 첫 출범하여 올해 13회째를 맞는 IPUS 평화아카데미는 평화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 및 소통을 위해 학생, 일반대중, 그리고 현장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된 제13기 평화아카데미는 '전쟁의 시대, 평화를 위한 전환적 상상력'을 테마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미동맹, 폭력 기억과 평화 기념의 미래,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전환 등 다채로운 주제를 선정해 수강생들과 함께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 아카데미에 참가한 수강생은 총 72명으로 그중 52명이 수료하였다. 수강생은 대학생 21%, 대학원생 35%, 일반시민 44%로 학업 중인 학생과 일반시민이 골고루 분포되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영역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계열이 65%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 15%, 인문학 10%,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경우 직업별로 전문직 종사 34%, 종교·시민단체 22%, 기타 44% 등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강생의 연령대는 20대와 50대 이상이 각 36%씩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40대가 15.3%, 30대가 12.5%로 그 뒤를 이었다.

| 프로그램 |

- **1강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문제까지**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2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과 중동평화**
  홍미정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
- **3강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트럼피즘과 한미동맹**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4강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101가지 방법: 폭력 기억과 평화 기념의 미래**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 **5강 녹색전환: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평화의 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6강 반둥의 평화기획과 글로벌사우스**
  백지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7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적 사고**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제3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국내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개설된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강좌와 비대면강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세계 한인 사회와 소통하고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왔다. 2025년 시작된 제3기 과정의 강의는 대전환기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 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 문화예술과 재외동포 등을 주제 하에 총 30회로 구성되었다. 2024년 9월 26~29일과 2026년 2월 7~10일에 실시된 제1차, 제2차 대면 집중강좌 기간 동안 모든 수강생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숙식하며 강의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대면 집중강좌의 마지막 날인 2026년 2월 10일(화)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제3기 <세계한인 통일평화 최고지도자 과정>은 막을 내렸다.

졸업식에서는 총 39명의 수강생 중 39명의 수강생이 80% 이상의 출석률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서를 받았다. 제3기 수강생 중 90% 이상이 제1차, 제2차 대면 집중강좌와 비대면 강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졸업식에서는 제3기 원우회의 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시흥아카데미

2020년 시흥캠퍼스 이전에 준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시흥시와 협력 하에 <시흥아카데미>를 출범하였다. <시흥아카데미>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축적된 통일·평화 교육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1) 시흥시민의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화감수성 및 통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2) 대학과 소속 지방자치체 시민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지식-일상, 연구-실천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확립하고, 3) 대학의 대사회 서비스 및 소속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아카데미>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흥시민평화학교>(1학기),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시흥리더스아카데미>(2학기)로 구성된다.

<제5회 시흥시민평화학교>
명사가 들려주는 나의 인생, 나의 책

2025년 4월-5월 "명사가 들려주는 나의 인생, 나의 책"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제5회 <시흥 시민평화학교>는 정호승 시인, 백경학 푸르메재단 대표, 임태혁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명사들이 인생 최고의 책을 소개하는 시민 눈높이 강연을 7주간 제공했다.삶과 어우러진 평화의 고전을 접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평화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시흥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제5회 시흥리더스아카데미>
트럼프 2.0과 세계질서의 대격변

2025년 10월-11월 "트럼프 2.0과 세계질서의 대격변"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제5회 <시흥 리더스아카데미>는 부활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대 전 국회의원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이란-이스라엘 분쟁, 미국 정치와 세계 패권의 변화, 달라진 전쟁 패더다임 등을 주제로 수준 높은 강연을 펼쳤다.

2025-2026년 연구 및 사업

출판

- 통일학 시리즈
- AJP
- 통일과 평화
-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
-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통일학시리즈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통일학시리즈》는 <통일학총서>, <통일학신서>, <통일학연구서> 3종으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통일학총서> 33권, <통일학신서> 7권, <통일학연구> 66권을 출간하였다.

통일학총서 학제적 종합학문으로서 통일학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학술시리즈

통일학신서 북한연구 및 통일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에 대한 학제적 연구시리즈

통일학연구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조사>, <북한주민의식조사> 등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기초조사결과 및 통일·북한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시리즈

• 《통일학시리즈》 2007-2025년 발간 목록

<통일학총서>

·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세균 외 7인 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박삼옥 외 3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7)
·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이순형 외 3인 저 , 서울대 출판부, 2007)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1』 (윤여창 외 6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2』 (김정욱 외 6인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남북통합지수, 1989~2007』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 (이연숙 외 3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북미대립/ 탈냉전 속의 냉전대립』 (장달중 외 2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네트워크 세계정치』 (김상배·하영선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이온죽·이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0)
· 『다플랫폼 다채널 시대의 통일방송』 (윤석민 외 4인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 (임홍배·송태수·정병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탈북인의 공사적 관계와 의사소통』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권영일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이효원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양문수·김병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통일농업 성장보고서』 (최정남·김완배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남북한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동학』 (정근식·정은미·강동완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독일통일과 여성』 (한정숙·홍찬숙·이재원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박경숙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
·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권위인식』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2014)
·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권재일 저, 2014)
·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관』 (강원택·이재철·조진만·한정택·김새미 저, 2015)
·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이순형·최연실·진미정 저, 2015)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정진화·손상희 저, 2015)
· 『북한의 체육과 여가』 (나영일·현주·안지호·신영진·진현주·성제훈 저, 2016)
·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김병연·정승호 저, 2015)
·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형태』 (김석주·이왕재·박상민·이혜원·최희란 저, 2015)
· 『북한의 수학 연구 현황 분석』 (김도한·신정선 저, 2016)
·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정근식·강성현 저, 2016)
· 『통일의료_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신희영·이혜원·안경수·안형순·임아영·전지은·최소영 저, 2017)
· 『광복 80년, 국가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분화』 (김범수, 전재호, 현재환, 정영철, 강혜석, 박명림, 김병로, 한모니까, 김성경, 김예림, 2025)
· 『통일 의료 2.0_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문진수·박상민·전지은·유찬·김주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2026)

<통일학신서>

·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이승훈·홍두승 저, 서울대 출판부, 2007)
· 『통일이후의 문학교육』 (김대행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북한의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우심지도 작성』 (최진용 저, 서울대 출판부, 2008)
·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임현진, 정영철, 서울대 출판부, 2008)
·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남북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한신갑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
·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최윤영 저,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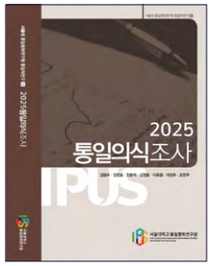
<통일학연구>

· 『2007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서호철·은기수·정은미 저, 2007)
·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2007)
· 『북한-중국간 사회 경제적 연결망의 구조』 (김병로·신상진·장경섭·정은미·조은희 저, 2008)
· 『2008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영호·정은미 저, 2008)
·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Schwekendiek, Daniel, 2009)
· 『2009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정란·정은미·이상신 저, 2009)
· 『2010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박정란·정은미·이상신 저, 2010)
·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저, 2011)

-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엘리트 정책 안정성』 (박명규·전현준 외 4인 저, 2011)
- 『2011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강원택·정은미·이상신·박정란 저, 2011)
- 『2012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송영훈·이수정·장용석 저, 2012)
- 『연성복합통일론』 (박명규·전재성 외 6인 저, 2012)
- 『북한국제화 2017』 (박명규·전재성·김병연·장용석·송영훈 저, 2013)
-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박명규·김병연·김병로·정은미 저, 2013)
- 『2013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김병로·송영훈·장용석·정은미 저, 2013)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 (송영훈·김병로·박명규 저, 2014)
- 『북한사회변동 2012-2013 :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박명규·장용석·정은미·송영훈 저, 2014)
- 『2014 통일의식조사』 (박명규·강원택·김병로·김병조·송영훈·장용석·정은미 저, 2014)
- 『북한주민통일의식 2014』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저, 2015)
- 『북한사회변동 2014_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장용석·정은미·박명규 저, 2015)
- 『2015 통일의식조사』 (박명규·정은미·김병로·장용석·최규빈·김병조·강원택·황정미 저, 2016)
-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_개성공단』 (김병로·김병연·박명규 외 지음, 2015)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정은미·김병로·박명규·최규빈 저, 2016)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서보혁 저, 2016)
- 『전쟁 기억과 기념의 문화정치』 (정근식 저, 2016)
-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민 저, 2016)
- 『2016 남북통합지수』 (정근식·김병연·김병로·정은미·장용석·이종민·김경민·안소연 저, 2016)
- 『2016 통일의식조사』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저, 2017)
- 『북한주민통일의식 2016』 (김병로·정동준·정근식·천경효·최규빈·황창현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6_시장화·정보화·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김경민 저, 2017)
- 『전환기 통일평화정책 대토론: 청년이 묻고 원로가 답하다』 (정세현·윤영관·송민순·홍석현·김태영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6_시장화·정보화·사회분화』 (장용석·정은미·김경민 저, 2017)
- 『2016 통일의식조사』 영문판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저, 2017)
- 『중국 속 북한이미지』 (박명규·백지운·이정훈·주윤정·김란·김성은·이성현·박선영 저, 2017)
- 『2017 남북통합지수』 (조동준·김병연·천자현·김학재·안소연·이종민·김경민 저, 2017)
- 『북한사회변동 2017_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정근식·조성은·천자현·왕정미·조용신 저, 2018)
- 『북한주민통일의식 2017』 (정동준·천경효·정근식·서보혁·조동준·문인철·이정옥 저, 2018)
- 『2017 통일의식조사』 (정동준·김선·김희정·정근식·문인철·송영훈·조동준·천자현·황정미·이정옥·임수진 저, 2018)
- 『2018 통일의식조사』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저, 2019)
- 『북한사회변동 2018_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 조용신 저, 2019)
- 『2019 통일의식조사』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최규빈·임경훈·조용신 저, 2020)
- 『북한주민통일의식 2019』 (김학재·김병로·문인철·엄현숙·조동준·천경효·임경훈·이정옥 저, 2020)
- 『2019 남북통합지수』 (안동환·천경효·김병연·김학재·이종민·조용신·황창현 저, 2020)
- 『2020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학재·김희정·박원호·이종민·최규빈·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북한주민 통일의식』 (김학재·엄현숙·문인철·김병로·천경효·조동준·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북한사회변동: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김학재·정은미·이종민·박상민·이혜원·김유연·최은정·임경훈·최현정 저, 2021)
- 『2020 남북통합지수』 (김범수·김병연·김학재·이경수·조용신·김유연·최현정 저, 2021)
- 『2021 남북통합지수』 (김범수·김병연·김학재·이경수·조용신·김민지·권지애 저, 2021)
- 『2021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병연·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최현정 저, 2022)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김유연·박상민·이혜원·송원준·이종민·정은미·이정철 저, 2022)
-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김병로·김학재·송원준·최은영·이정철 저, 2022)
- 『2022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김민지 저, 2022)
- 『2022 남북통합지수』 (김병연·김병로·김학재·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3)
-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김유연·박상민·이혜원·송원준·이종민·정은미·이정철, 2022)
- 『2023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조용신·조현주·김민지)
- 『2023 남북통합지수』 (김병로·김병연·김학재·조용신·신인석·권지애 저, 2024)
- 『2024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장용석·최은영·황수환·이성우·김택빈·김민지 저, 2024)
- 『2024 남북통합지수』 (김병로·조용신·신인석·권지애)
- 『2025 남북통합지수』 (김병로·김영호·이유철·신인석 저, 2025)
- 『2025 통일의식조사』 (김범수·김병로·장용석·김영호·이유철·이성우·조현주 저, 2025)
- 『한반도 통일과 평화적 상상력』 (김병로, 이창현, 조기연, 최규빈, 임수진, 윤현기, 송현진, 성상미, 김유연, 김경미, 이명신, 김희정, 202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4] 2025 통일의식조사

(김범수, 김병로, 장용석, 김영호, 이유철, 이성우, 조현주 저, 2025)



서장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통일북한인식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택

제7장 남북한 핵인식 추세와 전망

결장

부록

통일, 북한, 남북관계에 대한 2025년도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 책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5] 2025 남북통합지수

(김병로·김영호·이유철·신인석 저, 2025)

제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제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2. 영역별 지수
3. 종합

제3장 남북통합지수: 2010-2024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함으로써 체계적 모델을 구축하여 통일을 예측 가능한 과제로 실제화한 책이다. 크게 구조통합지수, 의식통합지수, 남북통합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AJP)*

본 연구원은 2013년 5월 아시아 최초의 평화학 전문 국제학술저널 AJP를 창간하였다.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발행되는 AJP는 본 연구원이 발신하는 '한반도발 평화학'의 학술적 가능성을 아시아 및 세계와 소통하는 한편, 세계 평화학의 의미 있는 성과를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JP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초의 평화학 전문 국제학술저널이다. AJP는 평화인문학의 문제의식을 세계로 발신하는 한편 세계 평화학의 의미 있는 성과를 수렴하는 토대로, 본 연구단 연구학술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라모스 호르타 전 티모르 대통령 및 평화관련 국제학회인 ISA와 IPRA의 역대 회장들(Harvey Starr, Etel Solingen과 T.V. Paul)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하여 우수논문의 투고를 유도하여 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와 Jose Ramos-Horta 전 Timor Lests 대통령의 논문을 싣는 등 우수논문 유치성과를 보였다. 논문 심사과정은 물론 출판 결정된 논문들의 생산과정에서도 국제적이며 프로페셔널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현재 KCI등재지이자 SCOPUS 등재지이다.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 Vol.13 No. 1 (2025.05)

Special Issue_Revisi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trategic Responses from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al Issue Editor: Jeheung Ryu

Rethinking Nuclear Deterrence in a Shifting Global Order: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Perspectives
Jeheung Ryu

The Bargaining Theory of War and North Korea: Why the Peninsula is More Stable than the Conventional Wisdom Suggests
Yuji Idomoto and David Kang

The Commitment Costs of Extended Deterrence and US Public Support for Sou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urvey Experiments from South Carolina
Hye-Sung Kim and Scott Huffmon

US-South Korea Nuclear Sharing: A Middle Path to Increase Security on the Peninsula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Perspective

Rationale of Female UN Peacekeepers: The Case of Indonesia
Fitriani, Ron Matthews, and Irfan Ansari

South Korean Democracy: Back to the Brink
SNU Democracy Cluster

Vol.13 No. 2 (2025.11)

Special Announcement

Honoring Excellence: Dr. T. V. Paul, Recipient of the Kim Dae-jung Award

Research Articles

A Double Bomb, Prolonged Colonization, and Resistance: The Live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Ansun Jeong, Jinyi Kim, Boyoung Park, and Young-jeon Shin

Hallyu (Korean Wave) in North Korea: The Effect of South Korean Media Exposure on the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Taekbin Kim

Hybridizing Justice: Cultural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in Lanao del Sur, the Philippines
Raihan A. Yusoph

Perspective

Religious Literacy and Youth Peacebuilding: Interfaith Engagements in Indonesian Communities
Zulfan Taufik, Vivi Yulia Nora, and Mardian Sulistyati

Thai Migrant Workers' Struggles in Malaysia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Md Mahbubul Haque, Bussabong Chaijaroenwatana, Kittipan Ekareesakul, and Nasnurul Hakimah Nasir

China's Growing Influence on Security in Africa: An Alternative Narrative Perspective
Jude Cocodia

Policy Issues in Addressing Cross-Border Human Trafficking: A Case Study of Kazakhstan
Erkebulan Zhetpisbaev, Zhomart Simtikov, Nurlan Apakhayev, Sandugash Khushkeldiyeva, and Abdulaziz Biyakhmet

국내학술지 『통일과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학술지 〈통일과 평화〉(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를 2009년 6월부터 연 2회 발행해왔고, 2024년 4월부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고 있다. 「통일과 평화」는 21세기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성할 핵심 키워드인 '통일'과 '평화' 관련 연구의 심화, 다양성 강화, 학문적 소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일과 평화」는 1)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 각 분야 연구,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2) 인간/자연/사회를 둘러싼 제반 폭력과 비평화구조, 환경문제와 생태, 지구화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와 갈등 등 평화의 주요 주제를 다룬 순수 학술논문을 엄선하여 싣고 있다. 특히 통일학/평화학의 다학제적 특성에 기반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실용적, 정책적 접근은 물론, 그 문명론적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작업 등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두루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학술지를 표방한다.

17집 3호 (2025.09)

특집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동향

변학문 •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2.16과학기술상 현황 연구

이태희 • 김정은 집권기(2012~2024년) 북한 전력 부문의 주요 정책 목표와 국제 학술논문 특징 분석

김지완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ICT 학술연구 동향 및 정책과제 분석

일반논문

이창현 • 현대적 극장국가 북한의 기원

장동관 • 비판적 법담론과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재구성 논의

김수현·정문성 • 초·중등 교사의 통일교육 실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7집 4호(2025.12)

특집논문

북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과제

최지영 •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 동향과 과제

정은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사회 연구방법의 대안적 모색** : 유엔기구 자료의 활용과 한계

김다울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사회과학 분야 연구 현황과 과제**

이시효 • **북한 도시·지역 연구를 위한 위성자료-AI 기반 혼합연구 방법론** : NK-RAMM 모델 제안

일반논문

허선혜 • **북한 산림부문 ICT 도입 현황과 특징**: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위진우 • **한국군 군사전략의 변화**: 시기별 영향요인과 자위적 공세 경향의 강화

신혜란 • **'체제 이주민'으로서 탈북민의 적**응: 이주 이론의 적용과 재해석

김효주 •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영향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계층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채연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통합 연구**

18집 1호(2026.03)

일반논문

이시헌·김나연·황진태 • **북한의 감정 통치 연구** : 조선인민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정당화를 중심으로

박찬수 • **통합과 분단의 경로잠금**: 경로의존성과 약한 연결을 통한 비교사례 분석과 한반도 적용

정예진·박태균 • **기능주의적 평화 모델의 한계와 거버넌스 취약성**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호·이정민·배광열·이주언·장영재·임성택 • **UN인권메커니즘에 따른 북한 장애인 법제의 변화와 수용** : 2023년 조선장애자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이성우 • **북한 접촉 경험이 통일 및 대북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접촉 유형별 차이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장동관 • **통일교육 교과서의 수용과 해석** : 세 위치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18집 2호(2026.06)

특집논문

<특집-김정은 시대의 농업·농촌 발전전략과 평가>

정은미 • **김정은 정권에서 농촌 재생산 체계 위기와 농민 문제**

김 혁 • **북한의 새 시대 농촌주택 건설의 정치적 함의**

일반논문

이채림·김동하·유승현·최경애 • **북한에서 건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변상원·장수은 •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도로 위 차량 탐지: 평양시 사례**

이종진 • **북한의 사이버-AI 넥서스 전략과 디지털 파놉티콘 : 보편적 기술의 의도적 전유와 사회적 재구성**

권오영·한지선 • **단군릉을 통해 본 북한의 한국사 인식체계와 민족의식**

차태준 • **강압 이론에 기반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재검토: 강압 사다리 등반 전략**

안광덕 • **통일교육의 공식 언어와 느린 통일의 감각 사이**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번호	발행일	저자	저서명
제21호	2025. 4. 25.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육실장,지리학과 교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 시작과 변화
제22호	2025. 5. 29.	**이향규** (런던 뉴몰든한글학교 교장)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영국 뉴몰든에서의 경험을 사례로
제23호	2025. 9. 2.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연구교수)	우리 안의 타자, 탈북민이 경험하는 일상적 폭력과 극복 역량
제24호	2025. 9. 8.	**조일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부교수)	'협력적구술사'를 통해 혐오와 대립에 균열 만들기
제25호	2025. 10. 29.	**전의령**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운영위원, 고고문화인류학과 부교수)	기후위기 시대, '비인간과의 공존'이라는 문제
제26호	2025. 11. 28.	**황인택**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몸이 느낀 것에 솔직해도 좋은 이유
제27호	2026. 6. 23.	**강혁민**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아시아학과 조교수)	한국 방위산업, 이대로 괜찮을까?

한-미 정책 브리프 (ROK-US POLICY BRIEF)

한-미 정책 브리프(The ROK-US Policy Brief)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가 지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현재 한국 관련 정책 사안을 분석하는 공동 간행물이다. 변화하는 국제 관계 속에 한반도 평화에 있어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 특히 한미 동맹의 상대국인 미국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성이 대두되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한반도 관련 현안에 관한 글을 발간하고 있다.

번호	발행월	저자	저서명
2025-May. ISSUE 9	2025. 05	**Tami Overby** (Sr Councelor DGA Group)	A New Era for Trade: Political Turmoil, Tariffs, and a Changing U.S.-South Korea Relationship
2025-June. ISSUE 10	2025. 06.	**Ankit Panda** (Stanton Senior Fell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Recent Iran Developmen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2025-July. ISSUE 11	2025. 07.	**Patrick M. Cronin** (Asia-Pacific Security Chai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Foreign Policy)	"North Korean Diplomacy: Stability, Realism, and Strategic Clarity"
2025-Aug. ISSUE 12	2025. 08.	**Derek Grossman** (Adjunct Senior Fellow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The Devil is in the Details: U.S. and ROK Seek Alliance Modernization, But How?
2025-Sep. ISSUE 13	2025. 09.	**Troy Stangarone** (Non-Resident Fellow Carnegie Mellon Institute for Strategy and Technology)	A Geostrategic Shift: Trilateral Convergence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2025-Oct. ISSUE 14	2025. 10.	**Henry Haggard** (Non-Resident Fellow Baker Institute Center for Energy Studies)	Trump's Policies in Conflict: Immigration, Investment, and Tariffs
2025-Nov. ISSUE 15	2025. 11.	**Wang Hwi Lee** (Professor, Ajou University)	US-ROK Relations after the Gyeongju Summit
2025-Dec. ISSUE 16	2025. 12.	**Bong-geun Jun** (President Korea Nuclear Policy Society)	Three Major Controversies Over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Plan
2026-Jan. ISSUE 17	2026. 01.	**Ankit Panda** (Stanton Senior Fell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Future of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Finding Policy Direction in a Tempestuous Time
2026-Feb. ISSUE 18	2026. 02.	**Henry Haggard** (Non-Resident Fellow Baker Institute Center for Energy Studies)	The Coupang Conundrum: From Bilateral Irritant to Transpacific Exemplar
2026-Mar. ISSUE 19	2026. 03.	**Kayla Orta** (Non-Resident Schola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WIKS); Non-Resident Fellow Indo-Pacific Security Initiative, Atlantic Council)	Iran's Asymmetric Drone Warfare: Critical Lessons for the U.S.-ROK Alliance
2026-Apr. ISSUE 20	2026. 04.	**Tom Ramage** (Fellow & Economic Policy Analyst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Energy Shock and Economic Resilience: South Korea and the Iran War

번호	발행월	저자	저서명
2026-May. ISSUE 21	2026. 05.	**Lami Kim** (Korea Chair in Advanced Technologie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Autonomy or Military Readiness?: The Trade-offs of Wartime OPCON Transfer
2026-June. ISSUE 22	2026. 06.	**Andrew Yeo** (Senior Fellow – Foreign Policy, Center for Asia Policy Studies, SK-Korea Foundation Chair in Korea Studies)	The Xi-Kim Summit and The Shifting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2025-2026 Annual Report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김범수
- 편집자: 김영호, 이종진
- 편집일: 2026년 7월 30일
- 발행일: 2026년 7월 31일